

세계의 세계시민교육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세계시민교육이란?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은 학생들이 지식·기술·가치 및 태도를 갖추어 지역 및 세계적 수준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 UNESCO는 이를 통해 '모든 학습자가 지속가능발전, 인권, 평화, 문화다양성 등을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전 지구적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과거의 국내 중심 시민교육만으로는 학습자가 직면할 문제를 다루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세계시민교육은 '글로벌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처: UNESCO

교육 현장에의 적용

세계시민교육은 정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비형식·비공식 교육에서도 확장되어야 한다. 예컨대, 통합 수업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이 세계의 일부이며, 자신의 행동이 글로벌 영향력을 갖는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돕는 수업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상에서의 혐오발언, 잘못된 정보 등을 다루는 교육도 세계시민교육의 중요한 영역이다. 세계시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교사 연수·교과과정 설계·평가 방식이 모두 조정되어야 한다. '세계 시민'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일상 수업과 학습 활동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조적 지원이 중요하다.

출처: UNESCO

세계시민교육 추구 역량

세계시민교육은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역 수준에서 맥락화되어 실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아래와 같은 역량을 키우게 되며, 궁극적으로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처: UNESCO

▶ 인지적 역량

- 세계적 문화와 나라 및 사람들 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지식, 이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

▶ 사회정서적 역량

- 공동 인류로서의 소속감, 연대감,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며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문화 간 이해를 키우는 것

▶ 행동적 역량

- 지역, 국가, 세계 수준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실천하는 것



▶ 독일의 세계시민교육 현황

- 유네스코 독일위원회는 독일 내 유네스코 교육 프로그램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
- 독일의 세계시민교육은 유네스코의 핵심 주제를 근간으로 수행함
- 다루는 세계시민교육의 범위: 민주주의와 인권 교육, 포용 교육, 평화교육, 지속가능발전 교육 등
- 세계 시민성 함양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와 기관, 지역사회가 연계해 실천

▶ 독일의 세계시민교육 사례

- 독일 연방 교육부와 독일 유네스코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교육 모범 실천 학교나 기관에 대해 '지속가능발전 교육 국가상'을 수여함.



- ▲ 자버 고등학교(퀵른)는 지속 가능한 주제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수상
- ▲ 세미나 '바인 가르텐'에서 교사양성 및 추가 교육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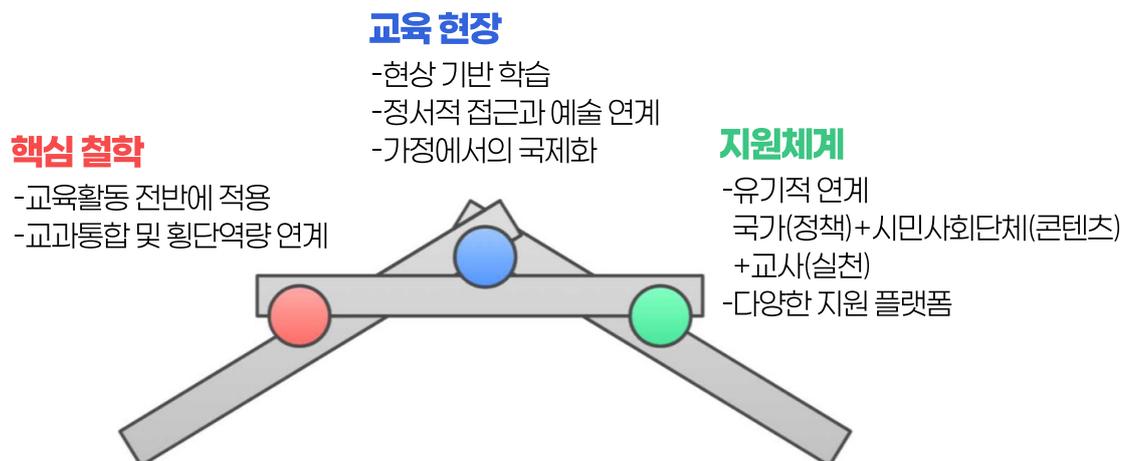
핀란드

핀란드는 세계시민교육을 별도의 교과가 아닌 국가 교육과정 전반에 횡단역량으로 통합하고, 현상 기반 학습과 예술적 접근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행동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이끈다. 아울러 국가교육청의 정책적 지원과 시민사회단체의 전문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학교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이 내실 있게 정착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 세계시민교육 지원 플랫폼 '핀고'



▶ 교실에서 시작되는 변화 핀란드의 세계 시민교육





▶ 영국 세계시민교육 현황



프랑스

프랑스는 세계시민교육을 보편적 가치(인권, 평화, 지속가능발전 등)에 기반한 교육으로 규정하며, EMC와 Parcours citoyen을 통해 교과·비교과 영역에 통합하고 있다. 교육부와 외무부는 공동정책을 마련해 학교, 교육구, 시민사회, 국제기구가 연계하는 구조를 운영하며, 학생은 학습과 참여 활동을 통해 시민성과 관련된 역량을 단계적·점진적으로 형성한다. 학교는 프로젝트 활동, 지역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국제 프로그램을 활용해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운영은 지역 간 실행 방식과 연수 접근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프랑스 세계시민 교육





▶ 세계 시민 교육을 위한 미국의 노력

· 교실에서 세계로, 행동하는 시민을 기르다

유네스코 스쿨

세계·유엔 이슈, ESD, 평화·인권, 문화 간 학습 (Intercultural learning). 수업은 논쟁적 이슈 다루기와 교원 연수까지 포함하는 '프로젝트·행동' 중심

연방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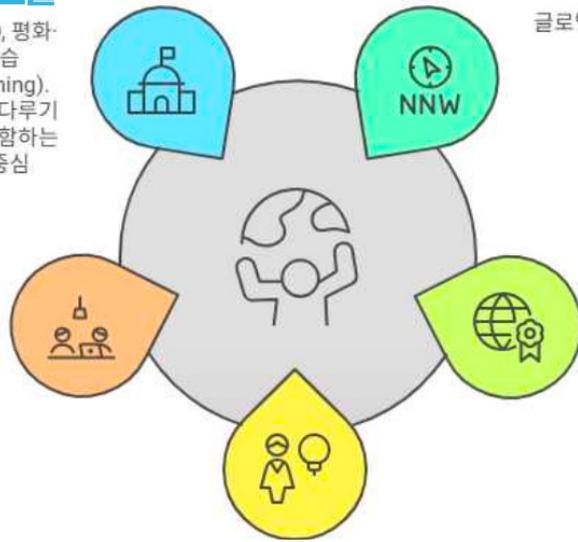
글로벌 및 문화적 역량 개발 프레임 워크

월드 사비(Savvy)

다년 학교 파트너십, 교원 전문성 개발, 프로젝트 기반 'Knowledge-to-Action(K2A)'

주 인증제 실시

글로벌 역량 인증제 (Seal of Global Competence)



글로벌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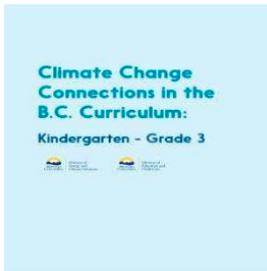


▶ 캐나다 세계시민교육의 토대

- 다문화적 국가 정체성과 포용의 가치를 토대로 발전
포함교육과 사회정서학습의 핵심 가치(공감·관계·참여)를 세계시민교육과 자연스럽게 통합
- 세계문제에 대한 지식 습득 < 인지-정서-행동-성찰로 이어지는 시민적 실천 경험



▶ 주별 실천 사례



- **BC주 세계시민교육 사례:**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 대응교육 K-12 전반에 통합, 지역단체와 협력한
생태·기후 프로젝트 운영
유치원 ~ 초등 3학년 자연영 학습자 대상 생활 기반 탐구 강조



- **온타리오주 세계시민교육 사례:** 시민성
시민성 프레임워크(정체성, 적극적 참여,
시민적 속성, 제도와 구조) 기반
학생 참여 중심 형평성 프로젝트 운영:
형평성 감사 도구, 학생 형평성 컨퍼런스



- **매니토바주 세계시민교육 사례:** 지역사회에서의 실천 활동
고등교육 과정 '글로벌 이슈: 시민성과
지속가능성' 과목 운영
기후·인권·빈곤 등 세계 이슈를 지역사회
프로젝트와 연결, 실천성 확보



호주와 뉴질랜드

▶ 호주의 세계시민교육

- 호주의 세계시민교육은 **다문화 사회의 가치,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관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참여를 강조하면서, 지역, 국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능동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시민(active and informed citizens) 육성**을 목표로 함
- 또한 실천적 경험을 위해 일부 학교는 **국제교류, 지역 커뮤니티 봉사, NGO 연계 학습**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평가위원회(ACARA)와 주 교육청에서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수업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의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함



▲ 호주 세계시민교육 개요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Australia
UNAAWA

SCHOOL PROGRAMS
ADDING VALUE TO THE CURRICULUM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UNAAWA offers member schools programs and resources aligning the UNESCO framework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with the Western Australian curriculum.

- 1. EDUCATION RESOURCES BANK AND SCHOOL SPEAKERS PROGRAM**
Providing teachers and students with access to digital resources and subject specialists.
- 2. STUDENT PARLIAMENT**
Offering opportunities for secondary students to make leadership and project management skills.
- 3. UNAA SCHOOLS' SUSTAINABILITY CHALLENGE**
Providing a model for project-based action learning through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4. YS ANDIE FRANK ART AWARDS**
Inspiring students to apply Creative and Critical Thinking for socially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human rights.
- 5. WORLD TEACHERS' DAY AWARDS**
Building community spirit and the best teachers nominated for their global education.
- 6. GLOBAL SKILLS PASSPORT**
Developing students in recording their achievement of Global Competence: Creative and Critical Thinking, Ethical Understanding, International Understanding.

THESE PROGRAMS BUILD STUDENTS' GLOBAL COMPETENCE - TO BE INCLUDED IN THE PROGRAM OF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SPIGA FOR THE FIRST TIME IN 2021.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www.unaawa.org.au

Contact the UNAAWA School Programs Coordinator at: gs@unaawa.org.au

▲ UNAAWA 제공 학교용 세계시민교육 활동 자료

▶ 뉴질랜드의 세계시민교육

- 뉴질랜드의 세계시민교육은 **미래 초점(Future focus) 원칙**에 입각해 학생들이 세계화, 지속 가능성, 시민권과 같은 미래 지향적인 주요 이슈들을 탐구하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실시됨
- **마오리족과의 관계(Te Tiriti o Waitangi)** 속에서 학생들이 자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함
- 특히 **시민 참여와 사회 정의, 글로벌 이슈 및 비판적 사고, 가치 탐구와 윤리적 시민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역, 국가, 글로벌 공동체의 연관성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The future focus principle

Future focus is one of eight principles in The New Zealand Curriculum that provide the foundation for decision making in schools.

▲ 미래 초점 원칙에 관한 기사문 (NZC Update, 2011.11.15.)



▲ New Lynn Primary School의 An "Asia aware" school 수업 장면

일본

▶ 세계시민교육 정책 및 현황

· 슈퍼글로벌고등학교(SGH) 및 슈퍼글로벌대학(SGU)

문부과학성이 지정한 슈퍼글로벌고등학교(SGH)는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미래의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혁신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실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생들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여 해결하는 탐구 학습을 실천한다. 또한 국내외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해외 필드워크를 통해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

· 유네스코스쿨(ASPnet)

유네스코스쿨은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통해 학생들이 인권, 환경, 평화 등의 주제를 깊이 탐구하도록 독려하는 국제적 네트워크다. 이 학교들은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글로벌한 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Glocal)’ 교육을 실천하며, 이는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적인 실천 모델로 기능한다.

▶ 세계시민교육 사례

▶ 캄보디아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고등학교-대학교(高大) 연계’ 필드워크



SGH인 오카야마 학예관 고등학교는 캄보디아 빈곤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한 학생 주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13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국내에서는 오카야마 대학과 같은 고등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캄보디아 현지로 직접 필드워크를 떠나 지역 주민과 협력하며 쓰레기 줍기, 공정무역 상품 판매와 같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 활동을 실행했다.

기획 및 편집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정책연구부 교육연구사 안주연 및 발간위원 8명

표지 기사

아천초등학교 교사 최희도

주소

054-840-2276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로 152

WEB

www.gbe.kr/gber



세계의 세계시민교육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독일의 세계시민교육

발간위원 : 최신영 (영주가흥초등학교 교사)

1. 독일의 세계시민교육 현황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이하 유네스코)¹⁾에서 는 출신,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 성별,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기타 특성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양질의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을 옹호한다. 여기에 교육 접근성, 교육의 질 향상, 평생 학습 증진이 포함된다. 유네스코 정책의 목표는 교육을 통해 더욱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 는 것이며, 국제 사회는 교육 2030 의제²⁾를 표명하며 이 목표를 공약했다.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하며 고품질의 교육과 평생 학습 기회를 보장한다.
-교육 의제 2030(지속가능발전 목표 4)

유네스코 독일위원회는 독일 내 유네스코 교육 프로그램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유네 스코의 교육 목표가 독일에서 최대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이 위원회의 주요 활동 분야는 지속가능발전 교육, 포용적 교육, 열린 교육 자원이다.

독일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의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 포용, 지속가능발전 교육 등을 아우르 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가. 유네스코 프로젝트 학교

독일 전역에서 300개가 넘는 학교, 교사 양성 대학, 유치원 및 기타 교육 기관들이 유네스코 학

1) 세계 문화유산을 선정하고 보존하는 국제기구, 전 세계의 교육, 과학, 문화 보급과 교류를 위해 설립된 (1945년) 유엔의 전문 기구(출처: 나무위키)

2)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의 일부분

교 네트워크(UNESCO Associated Schools Project Network, 이하 ASPnet)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 학교들은 세계적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맞춰 국제 이해와 변혁적 교육 분야에 있어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한다. 주요 내용으로 다루는 분야는 민주주의와 인권 교육, 지속가능발전 교육,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세계 문화유산 교육, 문화교육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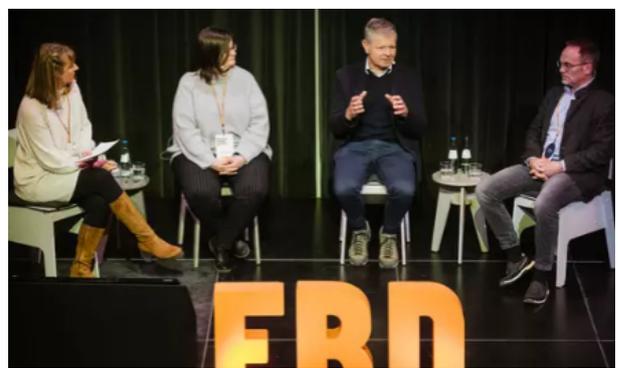
독일의 유네스코 프로젝트 학교들은 2년마다 특정 주제를 정해 자체적인 유네스코 프로젝트의 날을 개최한다. 2024년 프로젝트의 날은 ‘평화를 위하여!’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날을 통해 독일 전역의 유네스코 프로젝트 학교들은 반유대주의, 인종차별, 증오를 통한 배제, 괴롭힘, 차별 극복에 앞장서고자 했다.



[그림 1, 2] 유네스코 프로젝트 학교와 ‘국제 프로젝트의 날’ 운영 모습

나. 모두를 위한 교육(포용 교육)

교육권은 모든 사람이 평생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다. 포용 교육은 각 개인의 재능과 필요가 고려되고, 모든 학습자가 함께 배우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지원받는 것을 의미한다. 유네스코 위원회는 2017년 ‘독일의 포용 교육을 위하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독일 교육시스템 내에서 평생, 공식적·비공식적 맥락 모두에서 포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림 3] 사회적·이주 배경 관련 포용 교육

[그림 4] 교육의 디지털화와 포용 교육
관련해 열린 콘퍼런스

다. 민주주의 교육

독일에서는 민주주의를 적극적인 참여와 사회 형성을 통해 발전하는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기본적 권리와 시민적 권리를 행사하고 사회·정치적 협상에 비판적·자기성찰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양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 모든 것은 세계화, 디지털화, 이주, 기후 변화와 같은 사회적·세계적 배경과 맞물려 있다. 학교는 정치적으로 중립된 공간이 아니며, 보이텔스바흐 합의³⁾에 따라 사회적 변화, 위기, 갈등, 도전 과제들이 학교에서 비판적·논쟁적인 토론을 통해 정기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이슬람 혐오, 성차별, 민주 질서에 대한 공격 등을 검토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지역적 및 세계적)과 기후 위기의 원인과 결과도 다룬다. 민주주의 교육은 인권 교육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과 깊이 얽혀 있다.

라. 평화교육

학교 평화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복잡하고 다원적인 세상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 의지를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평화교육은 민주주의 교육, 글로벌 학습, 지속가능발전 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연결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폭력의 원인과 결과를 탐구하며, 비폭력적 갈등 해결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는 가족 내 갈등, 친구 간 갈등, 자신과 도시/마을과 사회 차원의 갈등, 국가 내부와 국가 간의 갈등이 포함된다.



[그림 5] 우크라이나 전쟁 다루기



[그림 6] 니더작센주(州) 학생 평화상 수여

마. 지속가능발전 교육

유엔이 2015년 채택한 세계 지속가능발전 의제는 17개의 핵심 목표(SDGs)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지속가능발전 교육(Bildung für nachhaltige Entwicklung, BNE)은 4번째 교육 목표의 핵심 가치를 형성한다.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을 의미하고, 2030 의제 전체의 중요한 추진 동력이기도 하다. 전 세계 사람들이 현재와 미래에 지구의 경계를 존중하며 존엄하게 살고 자신의

3)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 Consensus): 1976년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보이텔스바흐에서 열린 정치교육 학술회의에서 합의된 교육 원칙이다. 정치교육은 학생의 자율적 판단과 비판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요와 재능을 계발할 수 있을 때 발전은 지속 가능하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는 강력한 제도, 참여적 의사 결정 및 갈등 해결, 지식, 기술, 새로운 행동 양식이 필요하다. BNE는 모든 사람이 자기 행동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BNE는 학습 내용 및 결과, 교수법과 학습 환경을 고려하는 총체적·변혁적인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BNE는 기후 보호나 생물다양성과 같은 지속 가능성 문제를 다루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학습자들이 국제적 관점을 함양하고 세계시민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림 7] BNE를 위한 국가 계획 영상



[그림 8]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17개

2. 독일의 세계시민교육 사례

독일 연방 교육 연구부와 독일 유네스코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대한 모범을 실천한 학교나 기관에 대해 ‘지속가능발전 교육 국가상’을 수여한다. 이 상은 독일 교육 환경에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가. 세인트 자버 고등학교(켈른)



[그림 9] 세인트 자버 고등학교

켈른의 세인트 자버 고등학교(Gymnasium St. Xaver)에서는 17가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업에 통합하였다. 지속 가능한 주제에 관한 프로젝트(예: 박쥐와 정원 새를 위한 동지 상자 만들기)를 수행하고, 학교 식당에 재사용할 수 있는 컵을 도입하였으며, 학교 축제에서 학생들이 직접 만든 접시를 사용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였다. 학생회가

학교 건물 전체에 광원과 전환 시간을 사용해 조명 콘셉트를 만드는 데 참여했고, 양봉 및 꿀 생산을 포함한 학교 정원 클럽을 운영했다.

나. 세인트 프란치스쿠스 고등학교(무틀랑겐)



[그림 10] 세인트 프란치스쿠스 고등학교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무틀랑겐 지역 세인트 프란치스쿠스 고등학교 (Franziskus Gymnasium)에서는 새로운 교과목 ‘새로운 시작(생물학, 지리학, 종교학을 결합한 학제 간 과정)’을 도입했다. 이 교과는 지속가능발전 교육(BNE)의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및 ‘기후 보호 조치’라는 주제를 기반으로 한다. 정원 센터, 제로웨이스트 상점, 영화관 방문, 감각 정원, 대학, 숲 등 다양한 교과 외 학습 장소를 통해 실질적인 통찰력을 제공하고 대화를 장려한다.

팀 단위 제품 디자인 프로젝트가 있으며, 프로젝트 기간과 학교 축제에서 워크숍을 기획한다.

프로젝트 학기는 심층 학습 개념에 따라 구성된다. 각 학생은 자기 학습 과정을 생태 여행 일지에 기록하고, 지속 가능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품을 직접 선정해 디자인한다. 학습 그룹, 공간, 시간은 개인의 관심사와 학습 과정을 고려해 재구성 및 설계된다. 이 프로젝트는 2학기에 2차 시범 운영 단계에 돌입하며, 학부모·동료 학생들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프로젝트는 7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2학기에 주 6시간씩 진행된다.

다. 교사 양성 및 추가 교육을 위한 세미나



[그림 11] 바인 가르텐

세미나 Weingarten(Seminar für Ausbildung und Fortbildung der Lehrkräfte Weingarten Berufliche Schulen und Gymnasium)에는 교사 양성 및 추가 교육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민주주의, 지속가능발전 교육(BNE), 포용, 건강과 같은 범분야적 주제를 교육과정에 통합하는 통합적 접근법을 채택한다.

교사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학습자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다. 이러한 주제들은 미래에 매우 중요하며, 교사는 교과목별 및 학제 간 내용에 인지적으로 참여하고, 학습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행동할 수 있는 교수법을 습득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교실에서 이러한 주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려는 교사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이 바인 가르텐 세미나에서는 범분야적 주제에 대한 총체적 고찰을 포함하는 통합적 접근법을 추구한다. 교사 교육 프로그램의 전략적 초점은 ‘SDGs 4 - 양질의 교육’ 달성에 있다.

프로그램 시작 시, 교육 전체에 대한 주제(지속 가능성의 날, 민주주의의 날, 포용의 날, 건강의 날)를 기조연설, 워크숍 등 다양한 형식으로 다룬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는 연수에서 얻은 통찰력을 교과별 교수법 세션에 통합하고 해당 교과 내에서 논의할 책임이 있다. 연수 프로그램이 끝나면 자체적으로 선택한 주제에 대한 수업 계획을 개발하는 협력의 날을 개최한다. 이 수업 계획을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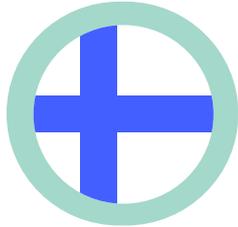
에서 실천해 보고, 추후 교과별 교수법 세션에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진다.

3. 맺음말

독일의 세계시민교육은 유네스코의 핵심 주제를 근간으로 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교육, 포용 교육, 평화교육, 지속가능발전 교육 등을 다루고 있다. 세계 시민성 함양이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와 기관, 지역사회가 연계해 실천하고 있다.

【참고 자료】

- ▶ Bildung für nachhaltige Entwicklung, <https://www.unesco.de/bne/>
- ▶ Bildung für nachhaltige Entwicklung: Mehr als 40 Initiativen werden in Köln gewürdigt, <https://www.unesco.de/aktuelles/bildung-fuer-nachhaltige-entwicklung-mehr-als-40-initiativen-werden-in-koeln-gewuerdigt/>
- ▶ Demokratiebildung, <https://bildungsportal-niedersachsen.de/demokratiebildung/>
- ▶ Gymnasium St. Xaver, <https://bne.unesco.de/bildung/bne-akteure/gymnasium-st-xaver>
- ▶ Hochwertige, inklusive und chancengerechte Bildung für alle, <https://www.unesco.de/themen/bildung/>
- ▶ Nachhaltig lernen und leben – Projekt Aufbruch, <https://bne.unesco.de/bildung/bne-akteure/nachhaltig-lernen-und-leben-projekt-aufbruch>
- ▶ Was ist BNE?, https://www.bne-portal.de/bne/de/einstieg/was-ist-bne/was-ist-bne_node.html
- ▶ Weingarten(Seminar für Ausbildung und Fortbildung der Lehrkräfte Weingarten (Berufliche Schulen und Gymnasium), <https://bne.unesco.de/bildung/bne-akteure/seminar-fuer-ausbildung-und-fortbildung-der-lehrkraefte-weingarten-berufliche>



핀란드의 세계시민교육 발간위원 : 최희도 (아천초등학교 교사)

최근 세계화와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가 드러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인권 존중, 다양성 이해, 지속 가능한 발전 등 세계시민으로서의 삶에 필요한 보편적 가치를 체득하고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핀란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국가 교육과정에 세계시민교육 요소를 조기에 통합하고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왔다.** 특히 **전통적으로 핀란드 교육이 지향해 온 가치와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는 방향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어 이러한 노력이 일찍부터 가능했으며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핀란드 국가 교육과정에 반영된 세계시민교육의 내용과 핵심 역량 그리고 학교 현장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핀란드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1. 핀란드의 세계시민교육 방향

가. 국제이해교육의 통합적 접근

핀란드 국가교육청은 국가 교육과정 전반에 국제성을 일관되게 통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이해교육은 단순히 외국어 학습이나 해외 교류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핀란드의 교육과정은 언어 교육,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국제 사회에 대한 이해를 교과와 학교 활동 전반에 통합하고 있다. **초등부터 고등단계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경험을 축적하며, 세계화된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게 된다.** 또한 교사들은 국제이해교육을 자연스럽게 교과 수업 속에 녹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프로젝트 학습이나 국제 협력 활동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나.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설계

핀란드의 교육과정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을 교육과정의 핵심 요소로 설정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수·학습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환경 보호를 넘어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책임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며 학생들이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핀란드는 현상 기반 학습, 학생 주도 프로젝트, 지역사회 및 국제 파트너십을 활용한 협력적 학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살아 있는 경험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특히 교사들은 교육청이 제공하는 수업 아이디어와 실천 사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주제를 다양한 교과 속에 통합하고 있으며 학교 차원에서는 친환경 운영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등을 통해 교육 내용과 실제 학교 문화가 일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학생들에게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참여를 통해 삶 속에서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표 1>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핀란드의 교수·학습 방향

교수·학습 방향	내용
다양한 교육 방법	- 다양한 교수법(프로젝트 학습, 야외 수업, 협동 학습 등)을 통한 학생 참여와 지속가능성 감수성 함양
다학제적 학습	- 여러 교과를 통합한 주제 중심 접근을 통한 통합적 이해 촉진
체험을 통해 탐구하고 배우기	- 실제 환경과 일상 문제 탐구를 통한 현상 이해와 인과관계 발견
해결 지향적 접근에서 희망 발견하기	-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해결 방안 탐색을 통한 희망 형성
활동적 시민으로 성장하기	- 일상 실천과 의사소통을 통한 책임 있는 시민성 함양

다. 교육과정 핵심역량⁴⁾에서의 세계시민교육

핀란드 국가교육과정은 모든 교과를 관통하는 **횡단역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내용을 구조화하는 기반이 된다.** 그중에서도 **국제 및 문화 역량**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 역량은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의 문화 정체성을 인식하고 국제사회 속에서 공동의 문제를 이해하며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윤리 및 환경 역량**은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탐색하고 개인의 가치관과 행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위의 두 가지 역량 외에도 핀란드의 횡단 역량에서는 세계시민교육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하는 요소들이 여럿 발견된다. 이처럼 핀란드의 핵심역량 체계는 세계시민교육을 별도의 교과가 아닌 모든 교육활동 속에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학습 주제로 통합하고 있으며 학생이 국제적 맥락에서 행동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4) 핀란드의 국가 핵심역량은 횡단역량(transversal competences)으로 표현하며 본 기사에서는 중등교육 횡단역량을 기준으로 함.

<표 2> 핀란드 중등교육 횡단역량

역량 영역	세부 내용
국제 및 문화 역량 (Global and cultural competence)	- 국제 역량 및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 - 핀란드, 유럽, 세계 유산에 대한 지식과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 - 국제 미디어·기술 환경에서의 윤리적 주체성
윤리 및 환경 역량 (Ethical and environmental competence)	- 공동선을 위한 가치 기반 및 윤리적 실천 - 자연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연구 기반 기후행동 - 순환경제 및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인식
사회 역량 (Societal competence)	- 민주주의의 기술, 안전하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영향력 행사 - 개인과 사회 전체를 위한 역량 활용 - 삶과 노동 세계에 대한 변화 적응력, 기업가적 태도
다학문·창의의 역량 (Multidisciplinary and creative competence)	- 학습에 대한 호기심과 동기, 의미 찾기 및 창의적 연결 능력 - 자기조절 학습, 사실에 근거한 비판, 메타인지적 학습 능력 - 디지털 시대의 복합 문해력
상호작용 역량 (Interaction competence)	- 감정 및 공감 능력 - 사회적·협력적 기술, 협력 학습 능력 - 언어 감수성과 건설적 의사소통 기술(중재 포함)
웰빙 역량 (Well-being competence)	- 자신과 타인을 돌보는 태도 - 자신의 강점 인식 및 활용, 정체성 형성 - 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의 끈기와 회복력

핀란드의 세계시민교육은 보편적 가치와 횡단역량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교사와 학생이 일상 수업과 활동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전반에 통합되어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세계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비판적 사고, 다양성 존중, 지속가능한 삶의 실천 역량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은 국제사회의 세계시민교육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2. 핀란드 교육현장에서의 세계시민교육

가. 현상 기반 학습(Phenomenon-based Learning)⁵⁾과 교과 융합

핀란드 학교들은 복합적인 국제적 이슈를 단편적인 지식으로 다루지 않고, 실제 세계의 현상을 주제로 삼아 통합적으로 탐구하는 ‘현상 기반 학습’을 적극 활용한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미래 마을(Future's Village)’ 프로젝트다. 학생들은 학교 외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사회, 과학, 기술, 예술 등 다양한 교과 지식을 동원해 자신이 살고 싶은 평등하고 생태적인 마을의 프로토타입을 직접 제작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조건을 탐구하며 미래 사회를 위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해답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학생들의 가장 일상적인 삶의 영역으로도 세밀하게 연결된다. 예를 들어 가정 교과와 사회 교과를 연계하여 ‘옷 수선’을 단순한 기능 습득이 아닌 과잉 소비에 대한 저항이자 지속가능한 실천으로 재정의하는 수업이 그 예다. 또한 ‘티셔츠 한 장의 생태적·윤리적 발자국’을 추적하며 저렴한 소비재가 개발도상국의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도 한다.

5) 개별 교과목이 아닌 현실 세계의 복합적인 현상을 주제로 선정하여, 여러 교과를 융합해 탐구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식

나. 정서적 접근과 예술을 통한 가치 내면화

기후 위기나 인권 침해와 같은 무거운 주제를 다룰 때, 핀란드 교육은 학생들의 심리적 안전과 정서적 수용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위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이나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해 미술, 무용, 문예 창작 등 예술적 도구를 수업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나아가 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을 발견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예술을 매개로 한 이러한 접근은 인지적 학습을 넘어 공감 능력을 키우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연대감을 정서적으로 내면화하는 데 기여한다.

다. 정체성 탐구와 가정에서의 국제화

학교는 학생들이 먼저 자신의 문화적 뿌리와 정체성을 확고히 하도록 '가계도 조사', '나의 언어와 문화 탐구'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문화에 대한 존중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다. 특히 **'가정에서의 국제화' 개념을 도입하여, 물리적으로 국경을 넘지 않고도 국제적 감각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교 내에서 국제 협력 온라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서로 다른 언어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돕는 '중재' 기술을 익히는 활동이 그 예다. 이는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세계시민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핀란드 교육의 평등주의 철학을 반영한다.

3. 세계시민교육의 실현을 위한 지원 체계

핀란드에서 세계시민교육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배경에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과 시민사회의 전문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협력 모델이 존재한다. **핀란드 국가교육청은 정책적 가이드라인과 플랫폼을 제공하고, 시민사회단체는 현장에 필요한 구체적인 콘텐츠와 전문 인력을 지원하며, 교사 연수는 이 두 가지가 교실 수업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 국가 차원의 플랫폼 구축과 자원 센터 운영

핀란드 국가교육청은 세계시민교육을 학교 교육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용 웹사이트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은 세계시민교육을 “학습자가 능동적인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독려하는 활동”으로 정의하며, 교사들이 수업 설계 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권, 지속가능발전, 문화 간 이해 등 주제별로 검증된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지원 체계는 **‘마일만코울루(Maailmankoulu)’**⁶⁾다. 평화교육연구소 등이 운영하고 외무부와 교육청이 지원하는 이 자원 센터는 학교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교사들은 이곳을 통해 다양한 시민단체가 개발한 신뢰도 높은 교육 자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교과 연계 수업안과 활동 아이디어를 제공받음으로써 수업 준비의 부담을 덜고 질 높은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

6) <https://rauhankasvatus.fi/en/>

나.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및 전문성 연계

핀란드의 세계시민교육 생태계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매우 핵심적이다. 시민사회단체 플랫폼인 ‘핀고(Fingo)’⁷⁾는 100개 이상의 단체가 참여하는 국제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교 현장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이들은 ‘팁 뱅크’를 운영하여 기후변화, 난민, 반인종주의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루는 구체적인 수업 기법을 공유한다. 또한 학교는 필요에 따라 네트워크에 소속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를 교실로 초청하여 강연이나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은 교사 개인이 다루기 힘든 복잡한 국제 이슈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그림 1] ‘핀고(Fingo)’ 네트워크 홈페이지

다. 실천 중심의 교사 연수와 역량 강화

교육과정의 변화가 실제 교실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돕는 핵심 기제는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교사 연수다. 대표적인 사례인 ‘세계를 바꾸는 학교’ 프로젝트는 교사들이 스스로를 ‘세계시민교육의 주체’로 인식하고, 모든 교과 활동에 세계시민성을 투영할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을 이끌어냈다. 최근 진행된 ‘트랜스포머 2030’ 연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속가능발전교육과 미래 사고를 접목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론을 전수했다.

라. 국제적 리더십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핀란드는 국내 교육의 내실화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의 리더십 발휘에도 적극적이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 목표 4.7(지속가능발전 및 세계시민교육 확산) 달성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Bridge 47’과 같은 국제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핀란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혁신적인 교육 정책을 옹호하고, 자국의 축적된 교육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세계시민교육의 국제 표준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7) <https://globaalikasvatus.fi/en/>

4. 맺음말

핀란드의 세계시민교육은 국가 교육과정 전반에 통합된 가치 지향적 교육으로, 학생들이 인류 공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교육은 국제이해, 지속가능발전, 인권, 다양성 등의 핵심 가치를 일상적인 수업과 학교 문화 속에 녹여내며, 이를 구체적인 횡단역량과 실천 중심의 교수학습 전략을 통해 실현하고 있다. 특히 **현상 기반 학습, 교과 간 융합, 정서와 예술을 통한 감정적 수용, 학생 주도 프로젝트와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등은 세계시민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핀란드는 **정책적 뒷받침과 교육 자원 플랫폼, 교사 연수 체계, 시민사회의 전문성을 연결하는 다층적 협력 구조를 통해 학교가 세계시민교육을 지속 가능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교육을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학생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끄는 시민적 학습의 장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핀란드의 사례는 세계시민교육이 특별한 행사나 캠페인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과정과 학교 문화, 교사의 실천 역량, 외부와의 연결성을 포괄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접근 속에서 자리잡아야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합적 구조는 우리 교육이 세계시민교육을 어떻게 내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며, 학교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세계의 구성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 자료】

- ▶OPH, Internationality in the national core curricula and in vocational qualifications
<https://www.oph.fi/en/programmes/internationality-national-core-curricula-and-vocational-qualifications>
- ▶OPH, Pedagogy that supports sustainable development in general education
<https://www.oph.fi/en/education-and-qualifications/pedagogy-supports-sustainable-development-general-education>
- ▶OPH, Transversal competences in Finnish general upper secondary education
<https://www.oph.fi/en/education-and-qualifications/transversal-competences-finnish-general-upper-secondary-education>
- ▶OPH, Language , culture, and internationalisation
<https://www.oph.fi/en/language-culture-and-internationalisation>
- ▶OPH, The global dimens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www.oph.fi/en/global-dimension-sustainable-development>
- ▶OPH, Supporting global education
<https://www.oph.fi/fi/koulutus-ja-tutkinnot/globalikasvatuksen-tueksi>
- ▶NLL, The power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Experiences from Finnish CSOs
<https://nll.org/inspirationsbog/cases/the-power-of-global-citizenship-education-experiences-from-finnish-csos>



영국의 세계시민교육

발간위원 : 정기엽 (청송중학교부동분교장 교사)



(출처: ACT Strategic Plan 2024-2030)

1. 들어가며

영국의 시민교육은 1990년대 후반부터 민주주의와 공동체 참여를 핵심 가치로 삼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발전해 왔다. 1998년 버나드 크릭(Bernard Crick) 교수가 주도한 「시민교육과 학교에서의 민주주의 교육(Crick Report)」은 시민교육을 국가 교육정책의 중심에 올려놓은 기점이었다. 이 보고서는 ‘사회적·도덕적 책임감’, ‘공동체 참여’, ‘정치적 소양’을 시민교육의 세 축으로 제시하고, 시민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학습으로 규정했다. 이를 토대로 2002년부터 영국의 중등학교에서는 시민교육(Citizenship)이 국가 교육과정의 법정 필수 과목으로 시행되었다. 학생들은 의회민주주의, 법과 인권, 시민의 권리와 책임, 지역사회 참여 등을 배우며, 토론·숙의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관찰하는 시민’이 아니라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2010년대에는 아카데미 제도 확대와 학업 성취 중심 정책으로 시민교육의 시수와 위상이 약화되는 시기가 있었다. 이에 영국 상원은 2018년과 2022년 보고서를 통해 시민교육의 법적 지위 강화와 기후위기·인권·디지털 사회 등 새로운 의제를 포괄하는 내용 개편을 권고했다. 시민교육을 선택 과목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공공선을 지탱하는 시민적 인프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강화된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으로의 확장과 맞물려 있다. 시민교육협회(ACT)는 2024~2030 전략에서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성, 세계적 정의(Global Justice), 인권,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시민교육의 핵심 영역으로 제시하며,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 4.7)가 요구하는 세계시민 역량을 학교 시민교육 안에 통합하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지역 문제를 출발점으로 세계적 불평등과 인권, 기후위기를 이해하는 ‘로컬 투 글로벌(Local-to-Global)’ 프로젝트가 확산되고 있다.

2025년 11월 발표된 ‘Plan for Change’는 이러한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최근의 정책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이번 국가 교육과정 개편은 2014년 이후 10여 년 만의 대규모 개편으로, 초등학교에서의 시민교육 법정화, 기후·환경 및 지속가능성 교육 강화, 미디어·디지털·금융 리터러시, 봉사·야외활동·예술·문화 경험을 포함한 학교 풍부화 프로그램 보장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영국의 시민교육은 국가의 정치·법 체계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디지털·기후 시대에 필요한 **세계시민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 재구조화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영국의 시민교육이 어떻게 세계시민교육으로 확장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최근 교육과정 개편이 이 흐름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도 간략히 짚어보고자 한다.

2. 본론

가. 영국 교육과정 속의 시민교육과 민주주의 학습

영국의 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은 국가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에 포함된 법정 교과로, Key Stage 3(11-14세)와 Key Stage 4(14-16세)에서 모든 공립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다.

- 민주주의와 정부: 영국의 정치체제, 의회 구조, 선거제도, 정당 정치, 지방자치 이해
- 법과 정의: 법의 기능, 형사·민사 사법제도, 인권과 국제법, 법 앞의 평등
- 시민의 권리와 책임: 자유·권리·의무, 시민 참여, 자원봉사, 시민 불복종 논의
- 경제·금융 이해: 개인 재정 관리, 조세와 공공재정, 복지제도, 경제정책의 영향
- 다양성과 정체성: 다문화 사회, 차별과 혐오, 평등과 포용, 정체성·소속감 논의

시민교육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민주주의를 함께 작동시키고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비판적·실천적 학습을 목표로** 한다. 대표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토론과 숙의(debate and deliberation),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Active Citizenship)가 있다. 학생들은 특정 사회 이슈를 선택해 자료를 조사하고,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비교하며, 정책 제안서나 캠페인을 설계하는 과정을 통해 ‘관찰하는 시민’이 아니라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요구받는다.

의회나 법원 방문, 지역 정치인·시의원과의 대화, 모의 선거(mock election)와 모의 의회 활동, 지역 캠페인 참여 등 체험 기반 시민학습 또한 교육과정의 중요한 일부다. 이처럼 시민교육은 교실 안

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갈등 조정, 합의 형성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교를 민주주의를 배우고 연습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둔다.

그러나 시민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에 비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시간·인력·평가·연수 체계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2018·2022년 상원 보고서와 2025년 국가 교육과정·평가 종합 검토(Curriculum and Assessment Review, Becky Francis 보고서)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고, 그 정책적 응답이 바로 2025년 Plan for Change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영국 내부의 시민교육 개편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발전해 온 세계시민교육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나. 세계시민교육으로의 개념 확장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은 국제교육·평화교육·인권교육·다문화교육·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의 흐름이 축적·통합되면서 재구성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국제구호·교육 비정부기구(NGO)인 Oxfam은 1997년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체계화하면서 ‘세계시민(Global Citizen)’ 개념을 본격적으로 제시했다. Oxfam은 세계시민을 세계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평등·불의·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Oxfam은 세계시민교육을 지식·기능·가치·태도가 통합된 역량 교육으로 설계한다.

[표1] Oxfam이 제시한 세계시민교육의 영역

지식 영역	세계의 구조와 불평등,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과제에 대한 이해
기능 영역	비판적 사고, 매체·정보 분석, 의사소통·협력·갈등 해결, 캠페인·프로젝트 기획 등 실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역량
가치·태도 영역	사회 정의, 평등, 평화, 인권, 다양성 존중, 환경 책임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변화에 참여하려는 태도

2015년 이후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 채택되면서 세계시민교육은 국제적 합의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특히 SDG 4.7은 “모든 학습자가 지속가능발전, 인권, 성 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세계시민의 가치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을 각국 교육정책의 목표로 제시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UNESCO와 여러 국제기구는 세계시민교육을 인지적·사회·정서적·행동 영역으로 구분한다.

[표2] UNESCO가 제시한 세계시민교육의 영역

인지적 영역	기후위기, 불평등, 분쟁, 난민,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 등 세계 문제에 대한 지식과 비판적 이해
--------	--

사회·정서적 영역	다른 사람·문화·세대에 대한 공감, 연대, 책임감, 타자에 대한 존중
행동 영역	지역과 세계 차원에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참여와 실천 (캠페인, 봉사, 정책 제안 등)

Oxfam이 제시한 지식·기능·가치·태도 틀과 UNESCO의 인지·사회정서·행동 영역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국제교육·평화교육·인권교육·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을 ‘세계시민’이라는 학습자 정체성과 연결하는 통합적 개념으로서 세계시민교육을 정립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와 같은 국제적 논의 위에서, 영국의 세계시민교육은 별도의 독립 교과라기보다 시민교육·지리·역사·RSHE(관계·성·보건교육)·RE(종교교육) 등 여러 교과에 걸쳐 공통으로 추구되는 교육목표로 발전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 시민교육의 제도적 틀 안에서 세계시민교육 요소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시민교육협회(ACT)는 2024~2030 전략계획에서 다음과 같은 의제를 핵심 영역으로 제시한다.

•기후 변화와 기후정의	•평등과 다양성, 반차별 교육
•지속가능성 및 환경 책임	•세계적 정의(Global Justice)와 국제연대
•미디어 및 정보 리터러시(허위정보·가짜뉴스 대응)	

이는 시민교육이 자국의 정치·제도 이해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후위기·불평등·인권·디지털 정보환경 등 세계적 차원의 책임과 연대 의식을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영국의 시민교육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시민교육의 틀에 국가 민주주의·법·정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결합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예를 들어 기후위기를 다루는 경우, 영국 정부와 의회의 기후정책, 탄소중립 계획, 기후 정의를 둘러싼 국내 논쟁과 함께 파리협정과 같은 국제협약, 글로벌 기후정의 운동, 기후 난민 문제를 동시에 다룬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국가 차원의 민주주의 제도, 세계 차원의 거버넌스, 시민 행동이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학습한다.

따라서 영국에서 세계시민교육은 기존 시민교육을 대체하는 별도의 교육이 아니라, **민주주의 학습의 범위를 세계 수준으로 확장하는 관점**을 제공하는 틀로 이해할 수 있다.

다. 학교 현장에서 구현되는 세계시민교육

정책 문서에서 말하는 세계시민교육은, 실제 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의 형태로 구현된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그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1) 배틀 오브 아이디어스(Battle of Ideas)

일부 중등학교와 시민단체가 협력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사회·환경·정치 주제를 직

접 선정해 공개 토론을 기획·진행한다. 주제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개인의 책임 vs 정부의 책임”, “AI와 일자리의 미래”, “표현의 자유와 혐오 발언의 경계”처럼 국내외 이슈를 아우른다. 학생들은 사전에 자료를 조사하고, 찬반 논거를 정리하며, 공개 토론에서 자신의 입장을 근거와 함께 제시한다. 이 과정은 비판적 사고(인지), 다른 관점에 대한 경청과 존중(정서), 공적 토론 참여 경험(행동)을 동시에 길러 주며, 민주주의와 세계시민교육이 교차하는 대표적인 장면이다.

2) ‘Stop and Search’(불심검문) 시민 프로젝트

영국의 일부 학교에서는 경찰의 불심검문 제도를 주제로 시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학생들은 지역 경찰과 인터뷰를 하고, 인종·계층별 통계 자료를 분석하며, 인권 단체의 보고서를 비교 검토한다. 그 후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이 제도의 공정성과 인권·안전의 균형에 대해 발표를 하거나, 정책 개선 제안을 작성하기도 한다. 여기서 학생들은 “치안과 인권 사이의 균형”, “표적 검문과 인종차별의 문제”, “유사한 논쟁이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법과 정의, 인권, 인종 정의를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된다.

3) 펠탐 컨버닝 파트너십(Feltham Convening Partnership)

런던 펠탐 지역에서 이루어진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정신건강, 교육격차, 지역 안전 등 지역 문제를 주제로 학생들이 여름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돕는다. 학생들은 인터뷰·설문·자료 분석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이나 캠페인 아이디어를 지역사회에 제시한다. 핵심은, 지역 문제(local issue)를 출발점으로 삼되, 이를 “전 세계 청소년들이 공통으로 겪는 구조적 문제”와 연결해 보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이후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자료로 확인하며,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의 행동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체감하게 된다.

4) UNICEF UK ‘Rights Respecting Schools Award’(RRSA)

RRSA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을 학교의 철학·문화·관계에 녹여내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약 4,000개 이상의 영국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학교는 리더십, 아동권리 지식, 교실 문화, 학생 의사결정 참여 등 네 영역에서 기준을 충족해야 상을 받을 수 있다. RRSA를 도입한 학교에서는 교과 속에서 아동권리와 세계시민의식을 다루는 동시에, 학생회·학급회의·학교행사 기획에 학생의 참여를 확대한다. 또 글로벌 이슈(기후위기, 난민, 아동노동 등)에 대해 권리의 관점에서 토론하게 하고, 권리 기반 캠페인을 학생들이 직접 기획·실행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지역에서 출발해 세계로 이어지는 학습 경로(Local-to-Global)”, “권리와 정의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토론과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연습”이라는 세계시민역량을 기르는 구조를 잘 보여준다.

3. 맺음말

영국의 세계시민교육은 기존 시민교육의 틀 위에서 형성·발전해 왔다. 크릭 보고서와 시민교육 법정 교과 도입을 통해 민주주의·인권·공동체 참여가 기본 축으로 자리 잡았고, 이후 Oxfam과 UNESCO, UN SDG 4.7이 제시한 세계시민교육 개념, 시민교육협회(ACT)의 전략, UNICEF 권리존중학교(RRSA)와 같은 프로그램이 기후위기, 불평등, 인권, 디지털 환경 등 글로벌 의제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시민교육의 범위를 넓혀 왔다. 현재 영국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젝트는 세계시민교육을 별도의 과목이 아니라 여러 교과와 학교 문화 전반에 가로지르는 목표로 구현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2025년 국가 교육과정 개편(Plan for Change)은 초등 시민교육의 법정화, 기후·지속가능성·미디어·디지털·금융 교육 강화, 풍부화 프로그램 보장 등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요소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디지털·인공지능(AI) 관련 교육 강화는 앞으로 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다루어야 할 새로운 의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쟁점화의 위험, 교사 전문성과 지원 부족, 학교·지역 간 격차, 평가와 책무성의 한계 등 과제도 드러낸다. 세계시민교육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교사 연수, 재정 지원, 평가 방식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영국의 경험은 한국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을 ‘추가 과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인권·지속가능발전의 아우르는 학생들의 기본 역량이자 교육과정의 핵심 축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 자료】

- ▶ Department for Education (2025). Curriculum and Assessment Review: Final report. Curriculum and Assessment Review Panel chaired by Becky Francis.
- ▶ Department for Education (2025). New curriculum to give young people the skills for life and work (Plan for Change announcement). Department for Education news release, 4 November 2025.
- ▶ Association for Citizenship Teaching (2024). ACT Strategic Plan 2024–2030. Association for Citizenship Teaching.
- ▶ Department for Education (2013).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Citizenship programmes of study for key stages 3 and 4. Department for Education.
- ▶ United Nations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 UNESCO (2014).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eparing learners for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UNESCO.
- ▶ UNICEF UK (2019). Rights Respecting Schools Award: Guidance for schools. UNICEF UK.
- ▶ 교육정책네트워크 해외교육동향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10091&pageIndex=1&nTbBoardArticleSeq=844088>



프랑스의 세계시민교육

발간위원 : 박다형 (포항이동고등학교 교사)

프랑스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 지속가능발전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교육의 핵심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한 ‘세계시민교육(éducation à la citoyenneté mondiale)’을 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연대교육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치 교육은 교과와 학교생활 전반에 통합되어 학생의 시민성, 윤리적 판단, 국제적 연대 의식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은 UNESCO가 제시한 정의를 바탕으로 하며, 프랑스는 이를 “세계적 차원의 문제를 이해하고 인권, 평화, 지속가능발전, 문화적 다양성 등 공동의 가치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교육부는 세계시민교육을 공화국의 가치와 국제적 연대 의식을 아우르는 상위 개념으로 규정하며, 이를 도덕·시민교육(EMC), 지속가능발전교육(EDD), 국제연대교육(ECSI)을 포함하는 통합적 교육 체계로 제시하고 있다.

2015년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이후 프랑스는 관련 정책을 한층 강화하였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교육제도를 정비하며, 시민성, 인권, 환경, 문화 간 이해 등 세계 시민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통합하였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프랑스 교육부와 외무부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두 부처는 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연대교육을 연계한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학교,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행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세계시민교육이 어떠한 법적 근거와 행정체계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학교 현장과 시민사회,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그 구조적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제도적 기반과 정책 체계

가. 법적 기반과 교육정책의 통합 구조

프랑스의 세계시민교육은 「교육법(Code de l'éducation)」 제L111-1조와 제L312-15조에 근거한다. 두 조항은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학교가 공화국의 가치, 인권 존중, 시민적 참여 의식을 교육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원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을 형성한다.

법적 근거에 따라 프랑스는 2015년 Parcours citoyen(시민성 학습 경로)을 도입하였다. 해당 제도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교육단계에서 운영되며, 인권, 평등, 종교적 중립성(laïcité), 지속가능발전, 국제연대 등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주제를 포괄한다. 학생은 교과 수업과 지역사회 활동, 자율 프로젝트를 연계한 방식으로 시민성·연대·국제적 이해를 실천적으로 학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Parcours citoyen의 운영 중심에는 도덕·시민교육(EMC)이 있다. EMC는 인권과 법, 공화국의 가치, 민주적 참여를 다루는 필수 교과로, Parcours citoyen의 핵심 축을 이루며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을 교과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나. 행정·외교 협력 체계와 정책 조정 구조

프랑스의 세계시민교육은 교육부와 외무부가 공동으로 구축한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교육부 산하 유럽·국제협력국(DREIC)은 학교 내 세계시민교육과 국제협력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각 교육구에 필요한 실행 지침을 마련한다. 외무부는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국제 연대 프로그램, 해외 교류사업을 담당하며, 교육부와의 연계를 통해 교육 정책과 외교 정책을 함께 조율한다.

두 부처는 '세계 시민성과 국제 연대 교육 전략(Stratégie nationale d'éducation à la citoyenneté et à la solidarité internationale)'을 공동으로 수립해 교육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이 전략은 시민성 함양과 국제 연대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틀로, 교육·문화·외교 영역을 하나의 제도적 구조 안에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학교 현장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은 중앙정부, 지방교육청,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 속에서 운영된다. 이러한 협력 방식은 법률과 행정적 지원, 사회적 참여가 결합된 체계를 형성하며, 국가 차원에서 세계 시민 역량을 체계적으로 길러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2.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 체계

가. 교육과정 중심 구조

프랑스의 세계시민교육은 도덕·시민교육(EMC)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통합되어 운영된다. EMC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필수 교과로 편성되며, 인권, 법과 규범, 공화국의 가치, 민주주의 참여 등 시민교육의 핵심 내용을 다룬다. 수업은 토론, 문서 분석, 사례 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생이 사회적·국제적 쟁점을 이해하고 시민적 판단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ECM 수업활동 모습 (출처: AEFÉ)

세계시민교육의 범위는 EMC에서 다루는 개념적 기반을 학교 안팎의 경험과 참여 활동으로 확장하는 Parcours citoyen(시민성 학습 경로)을 통해 보다 폭넓게 구현된다. Parcours citoyen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교육단계에서 운영되는 종합 학습 경로로, 일상 규범과 공동체 생활, 평등, 환경, 국제연대 등 주요 주제를 단계적으로 다룬다. 초등학교에서는 기본적인 시민성 형성에 중점을 두고, 중학교에서는 사회적 이슈 중심 활동, 고등학교에서는 국제적 쟁점 분석과 연계한 실천 활동이 강화된다.



[그림 2] Parcours citoyen의 주요 구성 요소 (출처: Eduscol)⁸⁾

EMC와 Parcours citoyen은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연결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EMC가 시민교육의 지식적·개념적 기반을 제공한다면, Parcours citoyen은 이를 실천적 경험과 참여 활동으로 확장하여 학생이 다양한 사회·지역·국제적 맥락에서 시민적 역할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교육부는 두 제도를 상호보완적 체계로 제시해 세계시민교육이 교육과정 전반에서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나. 학교 운영 체계와 지역 지원 구조

세계시민교육은 학교 단위의 운영 체계를 중심으로 실행된다. 학교는 EMC와 Parcours citoyen을 기반으로 학급 또는 학년 단위의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인권 주간 행사, 환경·기후 프로젝트, 문화 간 이해 활동, 국제기구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 참여 중심으로 구성되며, 학습 포트폴리오나 학교 기록체계를 통해 누적·관리된다.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지역 구조로는 교육구 내 DAAC(Délégation académique aux arts et à la culture)가 있다. DAAC는 시민교육과 국제활동을 담당하는 부서로, 학교의 프로젝트 기획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기관, 시민사회단체, 지방정부와의 연계를 조정한다. 또한 교사 연수 제공, 교육 자료 안내, 외부 기관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학교가 일관된 방향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실행할

8) 시민성 학습 경로의 세 축은 다음을 의미한다: APPRENDRE(배우기), PRATIQUER(실천하기), RENCONTRER(만나기)

수 있도록 돕는다.

교사 연수는 운영 체계의 핵심 요소로 기능한다. 교육부와 교육구 연수기관은 EMC 수업 운영, 토론 중심 수업, 프로젝트 기획, 국제연대 활동 등과 관련한 연수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며, DAAC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러한 연수 체계는 학교 간 실행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과정 내 세계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기반이 된다.

이처럼 프랑스의 세계시민교육은 교과(EMC), 교육과정 경로(Parcours citoyen), 학교 프로젝트, DAAC의 지역 지원 체계가 상호 연계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세계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식, 가치, 참여 역량을 교육 단계별로 형성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3. 시민사회 및 국제 협력 구조

가. 시민사회 및 지역 단위 협력 구조

프랑스의 세계시민교육은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단위 기관의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Educasol, France Volontaires, Ligue de l'enseignement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는 교육자료 제공, 교사 연수, 국제연대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에 제공한다. 이들 단체는 인권, 지속가능발전, 국제연대, 문화 간 이해 같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학교와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학생이 실제 사회적·국제적 쟁점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 기반을 마련한다.

이러한 시민사회 참여는 지역 차원의 협력 구조와 결합하여 학교에서의 실행을 강화한다. 지방정부와 지역 문화기관, 도서관, 박물관, 국제교류센터 등은 학교의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하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공간, 전문 인력,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해 학교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환경, 기후, 평등, 다문화 이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교는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학생이 지역사회와 국제적 맥락에서 참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나.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 체계

프랑스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서도 세계시민교육의 국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UNESCO가 운영하는 ASPnet(Associated Schools Network)에 700개 이상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지속가능발전, 인권, 세계유산 등을 주제로 국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Erasmus+ 프로그램은 학교 간 교류, 공동 수업 개발, 교사·학생 이동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국제 협력 범위를 넓힌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이 실제 국제적 쟁점에 접근하고 다양한 국가의 학생과 협력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국가 간 협력도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외무부는 국제연대(ECSI)⁹⁾ 정책을 기반으로 프랑코폰 국가 및 개발도상국과의 교육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관련 의제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국제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국내 학교로 전달되고, 학생들이 지역, 국가, 국제 차원의 문제를 연계해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4. 운영 현황과 제도적 과제

프랑스의 세계시민교육은 EMC 교과와 Parcours citoyen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 기관,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참여형 활동이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 통계·평가국 DEPP의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학교가 환경, 평등, 국제연대 등 주제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UNESCO ASPnet과 Erasmus+ 등 국제 프로그램도 학교 단위에서 선택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학생의 활동 기록은 포트폴리오 또는 시민성 기록체계를 통해 관리되며, DAAC는 지역 단위에서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한편 회계감사원은 학교 간 실행 수준의 차이, 교사 연수 접근성의 지역별 편차, 행정 중심 운영 경향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사 연수 강화, 디지털 자료 제공 확대, 학교 간 연계 프로그램 구축 등을 포함한 행정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고, Eduscol과 Educasol은 교육자료와 실행 사례를 제공해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 수준의 세계시민교육은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운영되며, 교육과정·지역 지원체계·국제 협력 프로그램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를 이룬다.

5. 세계시민교육 운영의 비교

프랑스와 한국은 세계시민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제도 운영 방식과 교육과정 속 통합 방식에서는 차이가 나타난다. 프랑스는 교과와 비교과를 연계한 통합 구조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 한국은 비교과 활동과 국제협력 프로그램 중심의 운영체계가 보다 두드러진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프랑스		한국
교육부 - 외무부 공동 추진	추진구조	교육부 중심, KOICA와 협력
EMC 교과 + Parcours citoyen 통합	운영체계	비교과 중심(자료·체험·연수 프로그램)

9) 프랑스 외무부가 국제연대 및 개발협력 정책과 연계해 사용하는 세계시민교육 개념으로, 시민성·국제연대·평등·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을 포괄한다.

교과·비교과 연계 프로젝트, 시민사회·지역기관 협력 기반	학교 실행 방식	학교 자율 구성, 프로그램 활용 중심
UNESCO ASPnet, Erasmus+ 및 국제연대(ECSI)	국제 협력	KOICA 글로벌 시민교육 프로그램 중심
교과 중심 통합 구조	주요 특징	체험·비교과 중심 구조

[표 1] 프랑스와 한국의 세계시민교육 운영 체계 비교¹⁰⁾

5. 맺음말

프랑스의 세계시민교육은 국가 정책과 국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일관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EMC를 중심으로 한 시민교육, Parcours citoyen을 통한 실천 활동,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와의 연계는 교육 단계 전반에서 학생의 시민적 경험을 확장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실행 구조는 세계시민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며, 학생이 지역적·국가적·국제적 맥락에서 사회적 쟁점을 이해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 자료】

- ▶ <https://eduscol.education.fr/1137/education-a-la-citoyennete-mondiale>
- ▶ <https://eduscol.education.fr/1558/le-parcours-citoyen-de-l-eleve>
- ▶ <https://www.education.gouv.fr/enseignement-moral-et-civique-emc-10412>
- ▶ <https://www.diplomatie.gouv.fr/fr/politique-etrangere-de-la-france/developpement/education-a-la-citoyennete-et-a-la-solidarite-internationale-ecsi/>
- ▶ <https://www.educasol.org/>
- ▶ <https://www.ccomptes.fr/fr/publications/lenseignement-moral-et-civique>
- ▶ <https://aspnet.unesco.org/en-us>

10) 참고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집필자가 작성함.



미국의 세계시민교육

발간위원 : 이호연 (예천여자고등학교 교사)

1. 왜 지금 '글로벌 역량'인가?

21세기 미국 교육의 핵심 화두는 단연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e)'이다. 이는 단순히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상호 연결된 세계의 복잡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과거 '국제이해교육'이 지식 습득에 머물렀다면, 오늘날 미국의 '세계시민교육'은 두 가지 거대한 축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첫째는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현실적 요구이다. 미국 기업들은 국경을 넘어 협업하고 경쟁하는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외국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둘째는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책무이다. 기후 변화, 팬데믹, 국제 분쟁과 같은 초국가적 문제들은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미래 세대가 이러한 문제에 책임감을 갖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시민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중앙집권적 교육과정이 없는 미국의 특성상, 세계 시민 교육은 국가 수준의 단일 지침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대신 연방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는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주(State)와 교육구(District), 그리고 비영리 교육기관(NPO)들이 파트너십을 통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분산적 접근은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채로운 교육 모델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2. 미국의 세계 시민 교육 정책 및 현황

가. 연방정부의 방향성 제시: '글로벌 및 문화적 역량 개발 프레임 워크'

미국 연방 교육부는 각 주와 학교가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나침반을 제공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글로벌 및

문화적 역량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Developing Global and Cultural Competencies)'이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학생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Framework for Developing Global and Cultural Competencies to Advance Equity, Excellence and Economic Competitiveness

From **Early Learning** To **Careers**

	Early Learning	Elementary	Secondary	Postsecondary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Emerging socio-emotional skill-building—focus on empathy, cooperation, and problem solving	Progressive socio-emotional skill-building—focus on empathy, perspective taking and conflict management	Strong socio-emotional and leadership skills—emphasis on multi-cultural understanding and working with diverse groups	Advanced socio-emotional and leadership skills, ability to effectively collaborate and communicate with people in cross-cultural settings
World and Heritage Languages	Developing language skills in English and other languages	Basic proficiency in at least one other language	Proficiency in at least one other language	Advanced proficiency — ability to work or study in at least one other language
Diverse Perspectives	Emerging global awareness through exposure to diverse cultures, histories, languages and perspectives	Deepening global awareness through continued exposure to diverse cultures, histories, languages and perspectives.	Deepening local and global knowledge and understanding, including through classes, projects, study abroad and virtual exchange	Highly developed ability to analyze and reflect on issues from diverse perspectives
Civic and Global Engagement	Growing awareness of community and institutions	Age-appropriate civic engagement and learning	Demonstrated ability to engage in key civic and global issues	Demonstrated ability for meaningful engagement in a wide range of civic and global issues and to be successful in one's own discipline/specialty in a global context

Globally and Culturally Competent Individuals

Proficient in at least two languages;

Aware of differences that exist between cultures, open to diverse perspectives, and appreciative of insight gained through open cultural exchange;

Critical and creative thinkers, who can apply understanding of diverse cultures, beliefs, economies, technology and forms of government in order to work effectively in cross-cultural settings to address societal, environmental or entrepreneurial challenges;

Able to operate at a professional level in intercultural and international contexts and to continue to develop new skills and harness technology to support continued growth.

Foundation of Discipline-Specific Knowledge and Understanding

January 2017

[그림 1] 글로벌 및 문화적 역량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
(Framework for Developing Global and Cultural Competencies)

• **세계 탐구 (Investigate the World)**

: 학생들은 자신의 주변 현상을 넘어, 지역적·전 지구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탐구하는 능력을 기른다.

• **관점 인식 (Recognize Perspectives)**

: 학생들은 자신과 타인의 관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하고, 하나의 사건이나 이슈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능력을 함양한다.

• **아이디어 소통 (Communicate Ideas)**

: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중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배웁니다. 이는 단순히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을 넘어, 자기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포함한다.

• **행동 실천 (Take Action)**

: 학생들은 탐구를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미 있는 행동을

실천하는 역량을 기른다.

이 프레임워크는 주 정부와 교육기관들이 자체 교육과정을 개발 및 평가하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나. 주(State) 정부의 구체적인 실천: '인증제'를 통한 동기 부여

연방정부의 방향성 아래, 각 주 정부는 학생들의 성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독려하기 위한 '**글로벌 역량 인증제 (Seal of Global Competence)**'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는 대학 입사나 취업 과정에서 긍정적인 평가 요소로 작용하며, 학생들이 세계 시민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끄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

- 위스콘신(Wisconsin)주의 '글로벌 교육 성취 인증서(GEAC)':

이 제도는 고등학생들이 ① 4개 이상의 세계 언어 또는 사회 과목 이수, ② 8개 이상의 글로벌 주제 관련 비교과 활동 참여(모의 UN 등), ③ 지역사회 봉사활동, ④ 최종 성찰 에세이 제출 등 네 가지 영역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면 졸업장에 공식 인증서를 수여한다. 이는 일회성 시험이 아닌, 고등학교 3~4년간의 꾸준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크다.

위스콘신주의 글로벌 교육 성취 인증 세부 과정(Specific processes)	
교과 학습	최소 4년간 단일 외국어를 이수하고, 국제 경제, 세계사, 비교 문화 등 '글로벌 초점을 가진 과목을 4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문화 리터러시	국제적 주제를 다룬 책 (최소 4권), 영화, 음악, 미술 전시 등 8개 이상의 문화 매체를 접하고 성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교과 외 활동	모의 UN, 국제 교류 동아리 등 글로벌 주제와 관련된 교내외 활동에 4개 이상 참여한 기록을 증명해야 함
지역사회 봉사	자신과 다른 문화권의 지역사회 또는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주제로 최소 20시간 이상의 봉사 활동을 수행해야 함

-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주의 '글로벌 언어 인증(Global Languages Endorsement)':

이 제도는 세계 언어 학습에 중점을 둔다. 학생들은 영어 외에 하나 이상의 언어에서 높은 수준의 능숙도를 입증하고, 관련 글로벌 활동에 참여하면 졸업장에 이를 공식적으로 표기 받는다. 이는 다중언어 능력이 글로벌 역량의 핵심임을 강조하는 주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다.

- 캘리포니아(California)주의 '시민 참여 우수 학생 인증(State Seal of Civic Engagement)':

이 제도는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 과정에서 글로벌한 관점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예를 들어, 지역의 환경 문제를 다루는 학생은 해당 문제가 어떻게 전 지구적 기후 변화와 연결되는지를 분석하고, 해외의 성공적인 해결 사례를 연구하여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이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글로벌(Glocal)' 교육의 철학을 효과적으로 구현한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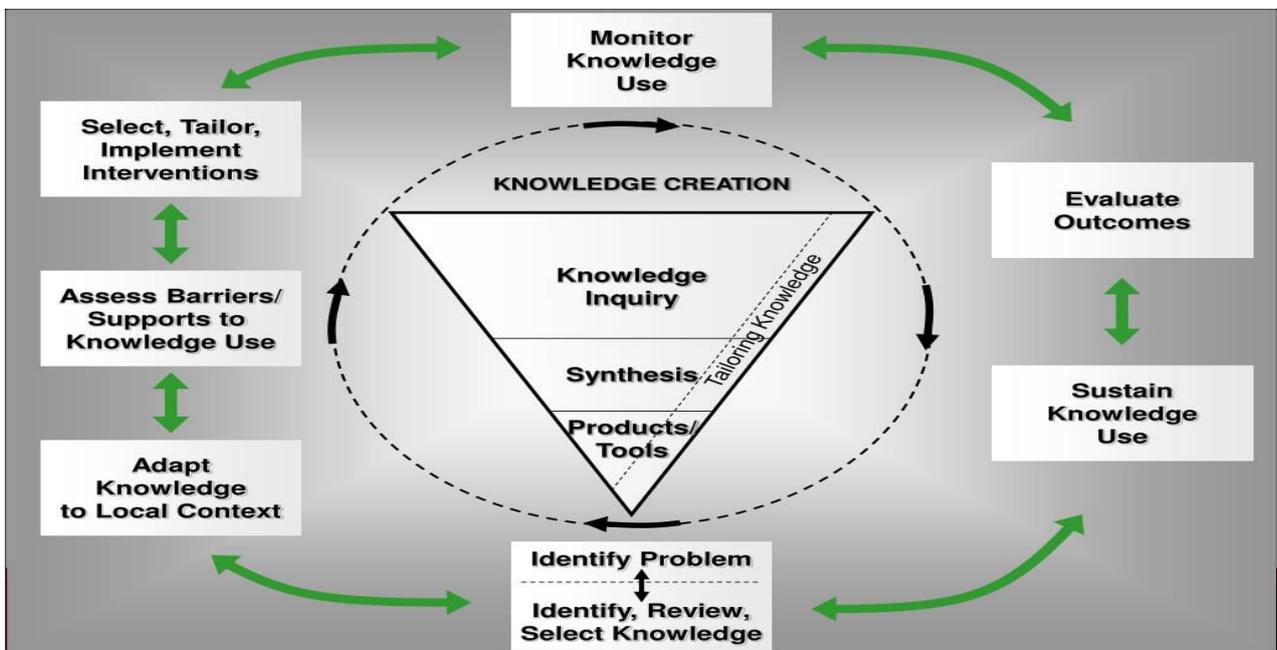
3. 교실 안팎의 세계 시민 교육 실천 사례

미국의 세계 시민 교육은 비영리 전문기관, 글로벌 네트워크, 학교 현장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역동적으로 실현된다.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실제 수업으로 바꾸는 이들의 혁신적인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가. 월드 사비(World Savvy): '글로벌 역량 연구소'를 통한 교사 역량 강화

미네소타주에 본부를 둔 비영리기관 '월드 사비(World Savvy)'는 "교사가 변해야 학생이 변한다"는 철학 아래, 미국 전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기반의 세계 시민 교육을 확산시키고 있다.

- 정체성: K-12 대상 세계시민교육 전문 비영리
- 영향 범위: 미국 전역 다수 학군·학교와 협력하며 학생·교원을 대규모로 지원
- 작동 방식: 다년 학교 파트너십, 교원 전문성 개발(리더십·수업설계 연수), 프로젝트 기반 'Knowledge-to-Action(K2A)'



[그림 2] 프로젝트 기반 'Knowledge-to-Action(K2A)' 과정

K2A 단계(현장용 디테일)	
배경지식 축적 (케이스 스터디)	실제 맥락의 사례로 이슈를 다각도에서 분석함. 월드 사비는 수업에 바로 쓰는 케이스 스터디 묶음을 제공함.
탐구 질문 정교화	신뢰 가능한 자료를 찾고(1차/2차), 가설과 성공조건·한계를 명시함.
아이디어 구상→프로토타입	디자인 씽킹을 따라 아이디어를 좁히고, 작게 시험 가능한 해결안으로 전환함.
실행(Act)	캠페인·서비스·정책 제안·제품 목업 등 현장 적용을 함. 미네소타의 학군 협업 행사에서도 K2A 프레임 적용해 지역문제 솔루션을 공동 설계했음.
성찰·증거화	결과/한계를 기록하고, 다음 사이클로 이어감(루브릭·피드백·전시/피치).

위 카루셀의 이미지는 보건·교육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K2A 순환 모델(지식 창출↔적용)의 일반 도식으로, '문제 규정→지식 선정→현지화→장애요인 점검→개입 실행→성과평가→지속 모니터링'의 반복형 구조를 시각화한다. 월드 사비의 K2A도 이와 같은 순환 논리를 교실 맥락에 맞게 구현한다.

· **교사 연수 모델 - 글로벌 역량 연구소:**

월드 사비는 교사들에게 완성된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1년간의 심층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 스스로가 교육과정 개발자가 되도록 돕는다.** 교사들은 이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실제 문제(지역 내 소수 인종의 건강 불평등)를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결하여 자신만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단원을 설계하고 동료 교사들과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세계 시민 교육의 '실천가이자 전문가'로 성장하게 된다.

· **학생 참여 모델 - 학생 행동 프로젝트:**

이렇게 훈련된 교사의 지도 아래 학생들은 교실에서 세계적인 문제와 연결된 지역 현안을 탐구한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의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법과 기술을 사용하고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지구적 시야를 가지고 지역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들은 최종적으로 지역 시의회나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해결책을 발표하며 '행동하는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직접 경험한다.



[그림 2] 2025, 미네소타 주 월드 사비(World Savvy) 실제 영향 범위와 학생 주도 활동 자료

나. 유네스코 스쿨(ASPnet): 풀뿌리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가치 실현

미국에도 유네스코 스쿨 네트워크(ASPnet)가 존재한다. 교육 자치성이 강한 미국에서는 정부 주도 사업보다는 개별 학교들이 유네스코의 이념에 동참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풀뿌리 네트워크'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미국의 유네스코 스쿨들은 전 세계 180여 개국, 1만여 개의 회원교와 함께 평화, 인권, 문화 간 이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유네스코의 핵심 가치를 교육과정에 녹여낸다. 이들은 단순히 교실에서 국제 문제를 배우는 것을 넘어,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다양한 글로벌 캠페인이나 국제 공동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한 다. 예를 들어, 전 지구적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캠페인에 동참하거나, 다른 나라의 유네스코 스쿨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교류하며 특정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식이다. 이는 '월드 사비'와 같은 전문기관과의 파트너십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글로벌 플랫폼에 직접 접속하여 학생과 교사들이 세계와 소통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표 이니셔티브·수업 틀(미국 학교 적용 시 바로 쓰는 축)	
Futures of Education 참여	2020-21년 전 세계 교장·교사·학생·학부모 2,500+명 의견을 모아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2021)' 보고서에 반영—미국 학교도 글로벌 토론에 참여 가능
Trash Hack(ESD 액션 캠페인)	폐기물·순환경제를 주제로 교사용 안내서와 학생 액션 활동을 제공—수업·가정·지역에서 작은 실천→증거 공유까지 지원
핵심 주제 프레임(4대 축)	세계·유엔 이슈, ESD, 평화·인권, 문화 간 학습(Intercultural learning). 수업은 논쟁적 이슈 다루기와 교원 연수까지 포함하는 '프로젝트·행동' 중심

· **Phillips Exeter Academy (뉴햄프셔,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미 사례)**

- » 지속가능발전(ESD) 전교 적용
 - 2023년 Sustainability & Climate Action Plan 채택
 - : 2005년 대비 2031년까지 75% 감축, 2050년 제로 목표, “모든 학생이 졸업 전 지속가능성의 원리와 기후 문제를 기본 소양으로 갖추게 한다”는 학교 차원의 학습 목표 명시
- » 글로벌 경험학습(세계 시민성)
 - 2025년 Global Initiatives
 - : 아이슬란드 지열, 베를린 보드룸 등 7개권역 현장학습—지질·생물·경제·언어·고고학 등 다학제 현장 프로젝트 운영(여름)
- » 학생 주도 ESG·커뮤니티 연계
 - Environmental Stewardship & Sustainability Award 등 ‘학생 주도 환경 리더십’ 장려 프로그램 운영

· **Friends School of Minnesota (미네소타 사례)**

- » 평화·인권(비폭력 갈등해결) 학교문화
 - 1988년 개교 때부터 Conflict Resolution Program을 전교 운영
 - : 케이커 비폭력 원칙 기반의 갈등중재·포레조정·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유치·초저학년부터 체계화 (교사·학부모 연수 포함)
- » 지역기반(Place-based)·환경교육

- 지역사회 연계 환경·봉사 학습을 통해 “공감하는 글로벌 시민” 양성을 학교 미션에 명시

4. 맺음말

미국의 사례는 분산적이고 유연한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세계시민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첫째, 미국은 '글로벌 역량'이라는 명확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되, 그 실행은 주와 교육 현장의 자율성에 맡긴다. 위스콘신주의 '글로벌 인증서와 같은 제도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 경로를 설계하고 그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함으로써, 내적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기관과의 파트너십 및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가 교육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 월드 사비 같은 기관들은 학교가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교사 연수를 제공하고, 유네스코 스쿨 네트워크는 학교에 글로벌 소통의 장을 열어주며 정책과 현장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미국의 사례들은 세계시민교육이 '지식'이 아닌 '역량' 중심의 교육임을 재확인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가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여준다.

한국 교육 역시 역량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는 모든 교과에 글로벌 관점을 녹여내고, 교사들이 창의적인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며, 학생들이 교실을 넘어 지역사회와 세계의 문제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참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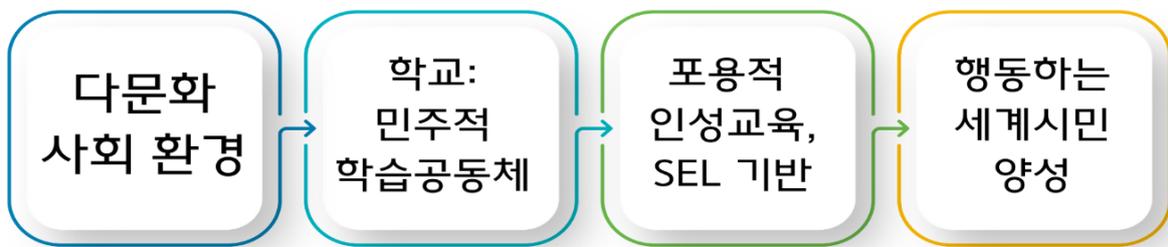
- ▶U.S. Department of Education (<https://www.ed.gov>)
- ▶World Savvy (<https://www.worldsavvy.org/>)
- ▶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https://dpi.wi.gov/>)
- ▶Minnesota Department of Education (<https://education.mn.gov/>)
- ▶UNESCO Associated Schools Network (ASPnet) (<https://www.unesco.org/en/aspnet>)



캐나다의 세계시민교육

발간위원 : 안예린(포항송곡초등학교 교사)

캐나다는 다양한 배경의 이민자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 다양성 속의 공존을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자 교육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캐나다의 학교 또한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의 학생들이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가는 민주적 학습 공동체로 기능해야 했다. 이에 따라 각 주 교육청은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을 포용적 인성교육의 가치 위에서 확장·발전시켜, 학생이 지역과 세계의 과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실천 경험을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그림 1] 캐나다 세계시민교육 실행 배경 및 구조

UNESCO(2015)¹¹⁾는 세계시민교육을 상호의존하는 세계 속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촉진하는 교육으로 설명하며, 캐나다는 세계시민교육을 행동하는 시민성의 관점으로 해석해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세계시민교육은 SEL(사회정서학습)과 포용교육이 가진 포용의 가치를 토대로 시작해 공감하는 시민, 그리고 행동하는 시민을 길러내는 민주적 시민교육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교실이 세계를 이해하는 창이자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천하는 작은 민주주의의 장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이는 학생이 지역·국가·세계의 경계를 넘어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책임’을 배우고, 지식을 실천으로 확장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잘 반영한다.

11)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Collective work, UNESCO, 2015

1. 캐나다 세계시민교육 토대 및 방향

가. 세계시민교육의 3단 구조

캐나다의 세계시민교육은 인지-정서-행동의 세 영역을 바탕으로 한다. 학생은 세계와 사회문제를 ‘아는 것’을 넘어, 공감하고 행동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교육받는다. 이 세 단계는 상호 순환적 구조로, 지식에서 정서적 공감을 거쳐 행동으로, 행동에서 다시 성찰로 이어지는 학습 흐름을 통해 학생에게 세계시민성을 내면화한다.



[그림 2] 캐나다 세계시민교육 흐름

나. 세계시민과 SEL, 포괄교육의 가치

캐나다의 세계시민교육은 사회정서학습(SEL)과 포괄교육이 지향하는 공감·관계·정의·참여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SEL은 학생이 자기인식과 공감,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시민적 감수성을 기르게 돕고, 포괄교육은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배우며 ‘함께 살아가는 시민성’을 경험하게 한다. 캐나다는 사회정서학습과 포괄교육에 세계시민교육을 자연스럽게 통합해 학생이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며 공동체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포용적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의 확장

최근 캐나다의 세계시민교육은 사회 구조와 불평등을 성찰하는 비판적 세계시민교육(Critical GCED)으로 확장되고 있다. 학생들은 기후 위기, 인권, 빈곤, 식량 등 복합적 사회문제를 배우는 주체를 넘어 변화를 이끄는 시민으로서 접근하고 탐구한다. 이 과정에서 교실은 토론·성찰의 장으로 전환되고 교사는 학생의 사고와 참여를 장려하는 촉진자 역할을 맡는다. 이러한 흐름은 정서적 공감에서 행동적 실천으로 나아가는 캐나다형 민주적 세계시민교육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라. 지속가능발전목표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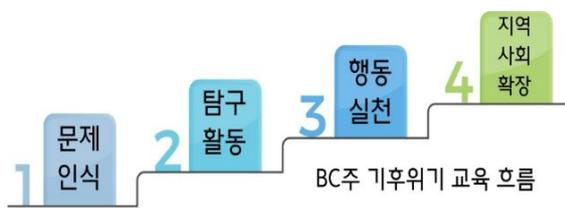
캐나다의 SDGs

캐나다는 국가 차원에서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주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추구하고, 이를 환경·인권·문화교육과 통합해 학생이 지속가능한 삶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학교는 기후행동, 불평등 등 SDGs 주제를 프로젝트·지역사회 활동과 연계해 세계 의제를 지역 맥락에서 탐구하게 한다. 학생은 지속가능성이 지식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임을 배우며, 자신의 행동이 공동체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는 시민으로 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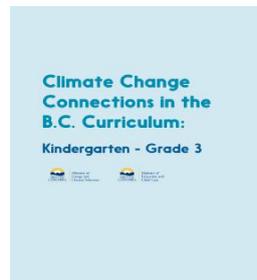
2. 주별 사례

가. 브리티시 컬럼비아(BC)의 기후 행동을 일상으로 만드는 탐구 기반 세계시민교육

BC주는 기후변화 교육을 K-12 교육과정 전반에 통합하는 선도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교육부는 기후변화를 과학의 한 단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학생이 변화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핵심 교육 분야로 인식한다. 또한 기후·환경 교육을 세계시민교육의 중요한 실천 영역으로 모든 학년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기후문해성 개념을 도입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단순한 정보 학습이 아닌 시민적 책임과 행동을 기반으로 한 교육적 과제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림 4] BC주 기후위기 대응 주제 교육 흐름



[그림 5] CCC 매뉴얼



[그림 6] CCC 활동 예시

특히 K-3(유치원~초등학교 3학년)단계에서, BC주 교육과정 속 기후변화 연계 프로그램(Climate Change Connections in the B.C. Curriculum, 2023)은 저연령 학생들이 실시할 수 있는 친환경 등교 방법, 지역 식품 위주 식습관 등 실제 생활 중심 탐구를 제시한다. 탐구를 통해 학생은 교실→가정→지역사회로 이어지는 확장형 캠페인을 수행하며, 학습맥락은 각 교과 성취기준과 핵심역량에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BC주 학생들은 어린 학령에서부터 교육과정 속 탐구—이해—행동 흐름의 실천적 학습 과정에서 기후 위기 주제를 접할 수 있다.

BC주 주민들의 교육적 기대 역시 이런 흐름을 뒷받침한다. 2022년 LSF(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배움)의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75%가 ‘기후교육은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BC주 지역사회가 기후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는 공적 장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는 이런 지역의 요구를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기후행동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 학교는 Learning by Nature와 같은 지역단체와 연계해 운동장의 생태 연구실화, 새집 만들기와 같은 학생 주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BC주는 교사가 기후위기 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주 교육부는 교과 성취기준과 연계된 기후학습 자료와 더불어, 수업 활동 예시와 지역사회 파트너십 활용 방안 등 실무 중심의 자료를 제공해 교사들이 기후교육을 쉽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기후변화 교육을 단편적 활동이 아니라 세계시민교육의 일관된 학습 경험으로 자리 잡게 하는 기반으로 평가된다.

다. 매니토바 주의 지역 사회속 실천활동 중심 세계시민교육

매니토바주의 글로벌 이슈:시민성과 지속가능성(Global Issues: Citizenship & Sustainability) 과목은 고등학생이 기후변화, 인권, 빈곤, 젠더, 지속가능성 등 복합적인 글로벌 이슈를 지역-국가-세계 관점에서 분석하고, 실제 변화를 만들기 위한 행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설계된 실천형 세계시민교육 모델이다. 이 과목은 탐구, 경험학습(active experiential learning), 대화, 협력, 성찰, 의사결정 등을 교육의 핵심 과정으로 제시하며, 학생들은 학교나 지역사회 기반의 행동연구 프로젝트(action-research project)를 직접 기획·실행한다. 과목을 수강하며 학생은 글로벌 이슈에 관한 지식 습득을 넘어 주변 사회 문제를 직접 정의하고 행동으로 해결하는 경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이렇게 매니토바의 세계시민교육은 실천과 행동 중심 세계시민성을 기르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글로벌 이슈:시민성과 지속가능성 과목에서 학생 프로젝트는 다른 주의 세계시민교육과 마찬가지로 탐구-행동-성찰의 구조 위에서 운영된다. 학생들은 글로벌 이슈를 조사한 뒤, 학교 또는 지역사회 기반의 행동 연구 프로젝트(action-research)를 직접 기획·실행한다. 이 과정은 문제 규정, 자료·이해관계자 조사 및 분석, 행동 계획 수립과 실행, 성찰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역 차원의 변화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시민적 실천 역량을 기를 수 있다.



[그림 9] 연구 프로젝트 흐름

일부 학교에서는 지역단체 및 NGO와 협력해 인권 캠페인, 생태 보전 프로그램, 에너지 전환 활동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매니토바 세계시민교육이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지역 기반 글로벌 시민성 모델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지역 사회와의 협력 경험을 통해 지역 문제를 세계적 이슈의 일부로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이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시민적 효능감을 기르게 된다.



[그림 10] 2025 Take action 고교생 참가자

매니토바 국제 협력 위원회(Manitoba Counci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MCIC)의 Take Action 프로그램에서는 매년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캠페인과 행동 결과를 발표하며, 기후·인권·빈곤 등 다양한 SDGs 관련 주제의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행사를 통해 매니토바는 세계시민교육을 단순한 국제이해 교육이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시민성교육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매니토바의 접근은 캐나다 GCED의 핵심 가치인 “비판적 시각-공감-실천”이 분명히 드러나는 사례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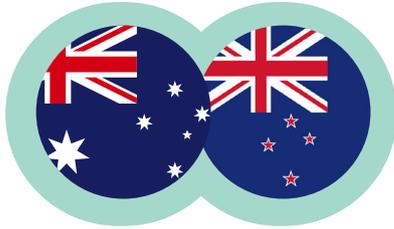
3. 맺음말

캐나다의 세계시민교육은 다문화 정체성과 민주적 가치 위에서 학생들이 세계와 지역사회를 연결해, 사고하고 행동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교육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의 기후위기 대응 기반 학습, 온타리오의 비판적 시민성 강화, 매니토바의 실천형 글로벌 이슈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지역적 맥락 속에서도 ‘인지-정서-행동’ 그리고 성찰로 이어지는 세계시민성의 핵심 구조를 공유한다. 이러한 사례는 세계적 이슈를 교과 내용이나 정보 학습으로만 다루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하는 교육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나아가 캐나다의 접근은 세계시민교육이 특정 과목이나 일회성 행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교 문화·정책·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일상의 학습 환경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포용과 정의를 기초로 한 비판적 성찰, 다양한 배경의 학생을 아우르는 포용 교육, 그리고 지역 기반 실천 프로젝트는 오늘의 복잡한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민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캐나다의 세계시민교육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며 발전해나가고 있다.

【참고 자료】

- ▶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Canada and the U.S.: From Nation-Centric Multiculturalism to Youth Engagement
- ▶ Critical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Canada,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Jennifer K. Bergen 외, 2020
- ▶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programs/agenda-2030.html>
- ▶ <https://www2.gov.bc.ca/gov/content/education-training/k-12/administration/program-management/climatechangeeducation>
- ▶ <https://lsf-1st.ca/wp-content/uploads/2023/05/British-Columbia-Provincial-Report.pdf>
- ▶ <https://www.dcp.edu.gov.on.ca/en/curriculum/elementary-sshg/grades/g1/context/importance-of-sshg>
- ▶ <https://sites.google.com/pdsb.net/equity-audit/home>
- ▶ <https://www.ocdsb.ca/about-us/departments/equity-and-diversity/diversity-equity>
- ▶ https://www.edu.gov.mb.ca/k12/cur/socstud/global_issues/full_doc.pdf
- ▶ <https://takeactionmanitoba.org/take-action-award>



호주와 뉴질랜드의 세계시민교육

발간위원 : 최지원(상대초등학교 교사)

1. 호주의 세계시민교육

호주는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을 국가 교육과정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지역, 국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능동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시민(active and informed citizens)**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호주의 세계시민교육은 다문화 사회의 가치,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관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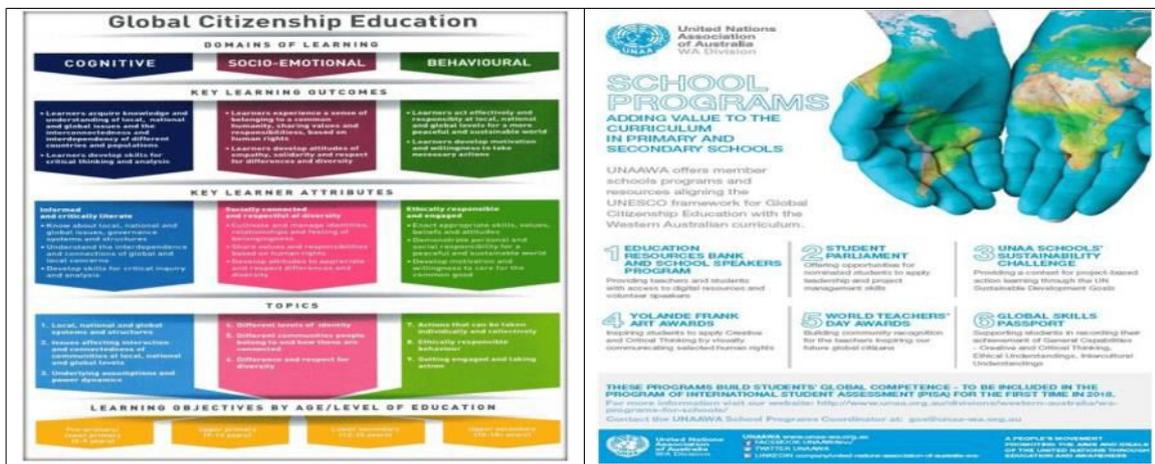
가. 호주 세계시민교육의 토대와 목표

호주에서 세계시민교육은 별도의 독립된 과목이라기보다는 주로 호주 교육과정의 일반 역량(General capabilities)과 인문 및 사회 과학(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HASS) 영역과 관련하여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며, 특히 문화 간 이해(Intercultural Understanding), 시민성(Civics and Citizenship),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구현된다.

호주 세계시민교육의 목표는 **멜버른 선언(Melbourne Declaration on Educational Goals for Young Australians, 2008)**을 통해 공식화하였다. 이 문건에서 호주는 청소년들을 ‘책임감 있는 지역 및 글로벌 시민(responsible local and global citizens)’으로 양성한다는 교육목표를 명시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들을 ‘성공적인 학습자, 자신감 있고 창의적인 개인, 그리고 능동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시민’이 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호주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주제 및 내용

호주의 세계시민교육은 다음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며, 이는 인지적, 사회-정서적, 그리고 행동적 영역을 포괄한다. 특히 세계시민교육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인문 및 사회 과학(HASS) 단원, 과학·지리·표현활동 등을 통해 통합적으로 가르친다. 예를 들어, ‘지역-세계 연결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이 지역 이슈를 조사하고 글로벌 사례와 비교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일부 학교는 국제교류, 지역 커뮤니티 봉사, 시민단체 연계 학습 등을 통해 실천적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호주 교육과정평가위원회(ACARA)와 주 교육청에서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의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그림 1] 호주 세계시민교육 개요(좌), UNAAWA에서 제공하는 학교용 세계시민교육 활동(우)

1) 다문화주의와 다양성(Diversity and Identity)

호주는 공식적으로 다문화주의를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보는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세계 시민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호주가 다문화적이고 다종교적인 사회로서의 다양성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고, 원주민(Indigenous peoples)의 인정과 화해,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대응과 같은 사회적 이슈를 탐구하도록 한다. 이러한 학습 주제와 내용은 학생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도록 돕는다.

2)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관계(Indo-Pacific Engagement)

호주는 지리적,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속에서 자국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는 학생들이 능동적인 글로벌 시민으로서 이웃 국가들과의 협력, 문화적 상호 이해, 그리고 지역 내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장려한다. 호주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는 이러한 ‘글로벌 책임성’과 국제 이슈에 대한 이해 교육을 위한 교실용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표 34> 호주 외교통상부에서 제공하는 세계시민교육 수업 자료 일부

대상	수업 계획	활동지	붙임 자료
3~4학년			

3) 글로벌 문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Global Issu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호주 세계시민교육은 기후 변화, 인권, 성 평등, 빈곤 및 국제 개발과 같은 글로벌 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인다. 특히 학생들은 UN에서의 호주의 역할과 국제적 의무에 대해 학습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를 중심으로 글로벌 문제에 접근하고 전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는(thinking globally and acting locally) 방법을 학습한다.

다. 호주 세계시민교육의 시사점

호주의 세계시민교육은 교과 과정 통합을 넘어 학교 공동체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실현되도록 권장된다. 교수학습 방법적 측면에서, 호주의 교사들은 학생 주도적 학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 그리고 실제 세계 문제를 다루는 탐구 중심적 접근(social inquiry approach)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한다. 이는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다양한 관점을 분석하며, 시민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 계획을 세우는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다. 또한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측면에서, 호주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지역, 주, 국가, 그리고 글로벌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강화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에는 자선단체 기금 마련,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또는 커뮤니티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시민 참여 활동이 포함된다.

결론적으로, 호주의 세계시민교육은 학생들이 호주 국민으로서 자국의 민주주의와 시민권의 기본 가치를 튼튼히 다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글로벌 역량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나아가, 전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윤리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하도록 이끌며, 범세계적인 도덕적 가치를 교육 정책 전반에 걸쳐 통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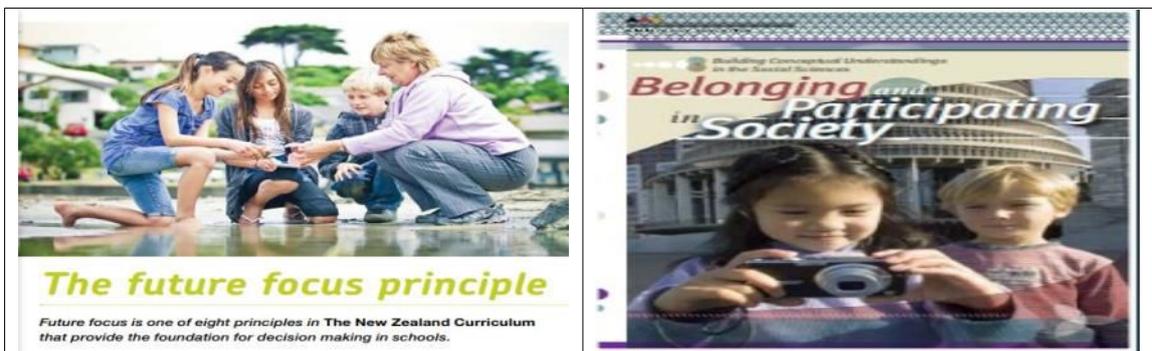
2. 뉴질랜드의 세계시민교육

뉴질랜드는 호주와 마찬가지로 세계시민교육을 별도의 교과목이 아니라 국가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뉴질랜드는 마오리족과의 관계(Te Tiriti o Waitangi)와 핵심 역량 개발을 세계시민교육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가. 뉴질랜드 세계시민교육의 목표 및 기반

뉴질랜드 세계시민교육의 목표와 기반은 뉴질랜드 교육과정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뉴질랜드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을 ‘자신감 있고 창의적이며, 연결되어 있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평생 학습자’로 기르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¹²⁾ 특히 **미래 초점(Future focus) 원칙**은 학생들이 세계화, 지속가능성, 시민권과 같은 미래 지향적인 주요 이슈들을 탐구하도록 장려한다.

뉴질랜드 교육과정의 주요 지향점은 다섯 가지 핵심 역량을 개발하는 것인데, 이 중 ‘참여 및 공헌 (Participating and contributing)’은 학생들이 지역, 국가, 글로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며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와이탕이 조약(Te Tiriti o Waitangi)의 정신을 인정하고 이중 문화적(bicultural) 토대를 세계시민교육에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그림 2] NZC Update에 소개된 Future Focus 원칙에 관한 기사(2011.11.15.) 일부

나. 뉴질랜드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주제 및 내용

뉴질랜드의 세계시민교육은 주로 사회 과학(Social Sciences) 교과와 연계하여 추진되며, 특히 지역, 국가, 글로벌 공동체의 연관성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둔다.

12) Ministry of Education NZ, The New Zealand Curriculum 2007, pp. 7, 9.

1) 시민 참여와 사회 정의

뉴질랜드 학생들은 사회 과학 교육을 통해 자신이 살고 일하는 지역, 국가 및 글로벌 공동체를 더 잘 이해하고,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개발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사회 정의와 인권과 같은 주제를 탐구하며, 개인, 집단, 제도가 사회 정의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 이해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가 국제 맥락에서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2) 글로벌 이슈 및 비판적 사고

뉴질랜드 세계시민교육은 자원 고갈, 기후 변화, 이주 인구 증가,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필요한 구성 요소로서 사회적 결속(Social cohesion), 관용(tolerance), 단결(unity)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학생들은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 및 정체성, 지속가능성, 글로벌 상호 연관성 등과 관련된 주제를 탐구한다.

3) 가치 탐구와 윤리적 시민성

사회 과학 교육은 뉴질랜드 학생들에게 인간 행동에 대해 명확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가치와 관점을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윤리적이고 공감 능력 있는 시민(ethical and empathetic citizens)으로서 공동체의 안녕에 관심을 갖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헌신하도록 양성하는 목표와 일치한다.

다. 교실 수업 사례: New Lynn Primary School의 An “Asia aware” school



[그림 3] New Lynn Primary School의 중국 회화(미술) 수업 장면

New Lynn Primary School 학생들은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교 전체가 중국어 수업을 듣고, 예를 들어 음악과 태극권 공연, 중국 회화 및 서예 수업 등을 통해 아시아 문화와 관습을 배운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로의 체험학습을 통한 살아있는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학교장을 비롯한 전체 교직원들이 기금을 모금하기도 한다. NLPS의 세계시민교육은 아시아 뉴질랜드 재단과 중국의 공자학원 등 국제 지역사회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원받는다.

3. 결론

두 나라의 세계시민교육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세계시민교육을 별도의 교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호주와 뉴질랜드 모두 세계시민교육을 독립된 과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기존 교육과정, 특히 인문 및 사회 과학 영역에 통합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세계시민의 자질이 특정 지식 습득을 넘어선 전인적 역량이라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행동 지향적 역량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두 나라 모두 세계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핵심 역량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참여 및 공헌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즉, 두 나라의 세계시민교육은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 비판적 사고와 사회 탐구(Social Inquiry) 방식을 통해 실제 세계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의 세계시민교육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와 같이 교과 지식 전달을 넘어 참여, 공헌, 비판적 사고와 같은 핵심 역량을 학교 세계시민교육의 중심으로 가져와 학생들이 지역 및 글로벌 문제 해결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향으로 보다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자료】

•Australian Curriculum F-10, Civics and citizenship education

<https://v8.australiancurriculum.edu.au/f-10-curriculum/humanities-and-social-sciences/civics-and-citizenship/structure/>

•DFAT of Australian Government, Global Education Resources for Classrooms

<https://www.dfat.gov.au/development/australias-development-program/global-education-resources-classrooms>

•UN Association of Australia, UNAAWA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chool Programs

<https://www.unaa.org.au/wp-content/uploads/2020/06/GCEd-Booklet-May19FINAL-1.pdf>

•ACARA, The Shape of the Australian Curriculum: Civics and Citizen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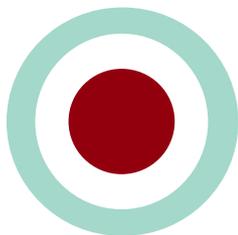
https://docs.acara.edu.au/resources/Shape_of_the_Australian_Curriculum_Civics_and_Citizenship_251012.pdf

•NCEA, What is Social Studies about?

https://ncea.education.govt.nz/social-sciences/social-studies?view=learning#field_subject_about

•NZ Curriculum Online, The Future Focus Principle

<https://nzcurriculum.tki.org.nz/content/download/10258/132505/file/NZC-update-15.pdf>



일본의 세계시민교육

발간위원 : 최광현(복주초등학교 교사)

1. 세계시민교육(GCED)으로의 변화

가. ‘국제이해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지구시민교육(地球市民教育)’ 혹은 ‘글로벌 시민교육’으로 지칭되는 일본의 세계시민교육(GC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은 1970년대에 시작된 ‘국제이해교육(國際理解教育)’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의 국제교육은 주로 동서 진영 문제, 유엔 이해와 같은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지식 습득과 문화 교류를 중심으로 한 정적인 개념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1974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이해, 국제협력 및 국제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를 기점으로 교육의 범위가 확장되기 시작했다. 이 권고에서는 인권, 환경, 개발 등 새로운 개념을 국제교육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는데, 이에 따라 일본에서도 교육의 목표가 단순한 외국 이해를 넘어 지구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시민 의식을 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미국의 ‘글로벌 교육(Global Education)’ 개념이 일본에 소개되면서 기존의 국제이해교육을 보완하거나 발전시키는 형태로 교육이 전개되었다. 이 시기의 교육은 개발 교육(Development Education)과 인권 교육을 통합하여, 학생들이 지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개념적 확장은 교육의 목적을 단순히 ‘아는 것’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교육은 이 과정을 통해 복잡한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진화했는데, 이러한 변화는 일본 사회가 직면한 다문화 공생과 같은 내부적 문제와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한 외부적 요구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나. 문부과학성의 정책 방향: ‘글로벌 인재 육성’ 목표

문부과학성은 ‘글로벌 인재(グローバル人材)’ 육성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교육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 새로운 학습지도요령(学習指導要領)은 학생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살아가는 힘(生きる力)’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학습지도요령은 ‘주체적·대화적이고 깊이 있는 배움(主体的·對話的で深い学び)’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모든 학생이 ‘공공(公共)’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여 주권자 의식을 기르고 사회에 참여하는 역량을 배우도록 했다.

이러한 정책적 지향은 단순히 언어 능력이나 해외 경험에 국한된 ‘글로벌 인재’를 넘어,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보편적 역량을 갖춘 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는데, 대표적으로 고등학교의 ‘슈퍼글로벌고등학교(SGH)’와 대학의 ‘슈퍼글로벌대학(SGU)’ 사업은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실천을 지원하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교육은 세계시민교육을 엘리트 교육의 차원을 넘어, 모든 학생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핵심 역량으로 간주하고 있다.

2. 세계시민교육 정책 및 현황

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

문부과학성은 세계시민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크게 엘리트 교육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과 보편적 교육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1) 슈퍼글로벌고등학교(SGH) 및 슈퍼글로벌대학(SGU)

문부과학성이 지정한 슈퍼글로벌고등학교(SGH)는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미래의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혁신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실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학생들이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관점에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여 해결하는 탐구 학습을 실천하도록 독려한다. 또한 국내외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해외 필드워크를 통해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도록 지원하고 있다. SGH와 유사하게, SGU

사업은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특정 학교에 자원을 집중하여 선도적인 교육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2) 유네스코스쿨(ASPnet)

유네스코스쿨(Associated Schools Project Network, ASPnet)은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통해 학생들이 인권, 환경, 평화 등의 주제를 깊이 탐구하도록 독려하는 국제적 네트워크다. 1953년 2개 교로 시작된 유네스코스쿨은 현재 200개 이상의 고등학교와 500개 이상의 초등학교가 참여하는 대규모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이 학교들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글로벌한 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Glocal)’ 교육을 실천하며, 이는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적인 실천 모델로 기능한다. SGH와 SGU가 엘리트 양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 유네스코스쿨은 학교의 규모나 특성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교육 가치를 확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두 제도의 병행은 일본 정부가 소수의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동시에, 모든 학생의 세계 시민 역량을 함양하려는 이중 전략을 보여준다.

나. 교과 및 교육과정 내에서의 실천

일본의 세계시민교육은 특정 과목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유기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특히 교과 학습의 틀을 벗어나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종합 학습 시간(総合的な学習の時間)’은 세계시민교육 관련 주제를 다루는 주요 창구이다. 이 시간은 학생들이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고, 탐구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목표와 교육 현장 사이에는 일부 간극이 존재한다. 2002년 ‘종합 학습 시간’이 도입된 이후 국제이해를 주제로 다룬 초등학교의 62.6% 중 51.0%가 이를 ‘외국어 회화’ 수업으로 대체했다는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이는 교사의 전문성 부족, 교육 자원의 한계, 혹은 평가에 대한 부담 등 여러 현실적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된다. 이처럼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이 세계시민교육을 심도 있게 구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수법과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본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단순한 정책 제시만으로 학생들의 실질적 세계시민 역량 강화가 어렵다는 교훈을 얻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다. 학생 해외 파견 현황 및 정부 목표

일본 정부는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로 학생들의 해외 유학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부과학성 및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도에 해외로 유학을 떠난 일본인 학생 수는 58,162명으로,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감했던 2021년도에 비해 428.8%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급격한 회복세는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함께 학생 및 학부모의 해외 경험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한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유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도 고등학생 유학생 수는 3.5만 명으로 크게 회복했으나, 코로나19 이전인 4.7만 명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2033년까지 일본인 해외 유학자 수를 50만 명으로 늘린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다. 이처럼 유학자 수 목표는 단순한 인적 교류 확대를 넘어,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3. 세계시민교육 사례

일본의 세계시민교육은 이론적 논의를 넘어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천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글로벌(Glocal)’이라는 개념을 효과적으로 구현한 사례들과 해외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사례 등 글로벌한 시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바라보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 프로젝트



산간 지역에 위치한 후쿠시마현 타다미 중학교는 바다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니가타 바다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이 학교 학생들은 지역 특산물인 너도밤나무와 코키아(ホウキギ)를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뱃지와 ‘탄소 제로 빗자루’를 제작하는 활동을 펼쳤다. 또한 종이 장바구니 만들기 교실을 개최하여 신입생과 지역 주민에게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확산시켰다. 이러한 학생 주도의 프로젝트는 지역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세계시민교육이 거창한 국제적 주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학생들의 일상과 밀접한 문제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타다미 중학교는 UN 사무총장에게 이러한 활동을 소개하는 글을 썼고, 사무총장으로부터 답신도 받았다.

‘글로벌 시티즌십 캠프’를 통한 다문화 공생 및 SDGs 실천



유네스코스쿨인 요코하마 히가시 고등학교는 ‘글로벌 시티즌십 캠프’를 개최하여 지역 내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SDGs 목표에 대해 토론하고 워크숍을 진행했다. 또한, ‘ESD Day’를 통해 대학 및 기업과 협력하여 사회 문제에 대한 강연을 듣고, 그 내용을 지역 방송국에 알리는 정보 확산 활동까지 진행했다. 이는 단순한 이론 학습을 넘어, 실질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세계시민 역량을 길러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된다.

캄보디아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고등학교-대학교(高大) 연계’ 필드워크



문부과학성 지정 SGH인 오카야마 학예관 고등학교는 캄보디아 빈곤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한 학생 주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13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국내에서는 오카야마 대학과 같은 고등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캄보디아 현지로 직접 필드워크를 떠나 지역 주민과 협력하며 쓰레기 줍기, 공정무역 상품 판매와 같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 활동을 실행했다. 이 사례는 세계시민교육이 학문적 탐구와 현실적 실천을 결합하여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교실 밖으로 교육의 장을 확장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노면전차(市電)’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유네스코스쿨인 도야마 시립 호리카와 초등학교는 고령화 사회와 지방 창생이라는 지역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주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학교 6학년 학생들은 지역의 노면전차를 주제로 탐구 활동을 펼쳤다. 나아가 지역 도시 계획 전문가와 기업인을 초청해 배운 내용을 심화하고, 직접 ‘마을 만들기 집회’를 열어 자신들의 기획안을 발표했다. 이 사례는 거창한 해외 교류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문제를 글로벌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실천적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4. 맺음말

일본의 세계시민교육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본 정부는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명확한 국가 목표 아래 SGH/SGU와 같은 제도를 통해 자원을 집중하고, 유학자 수와 같은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이는 세계시민교육을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일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둘째, 일본의 성공 사례들은 세계시민교육이 거창한 해외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다양한 교육사례들은 ‘글로벌(Glocal)’ 교육활동이 글로벌한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학생들의 능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셋째, 정책 목표와 현장 실행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의 역량 강화와 자원 지원이 필수적이다. 일본의 ‘종합 학습 시간’ 사례에서 보았듯이, 교사들이 세계시민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지원이 가능할 때 일본의 세계시민교육은 보다 확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 ▶ 文部科学省, <https://www.mext.go.jp/unesco/002/006/002/003/shiryo/attach/1356893.htm>
- ▶ 文部科学省, https://www.mext.go.jp/b_menu/shingi/chousa/shotou/026/shiryou/04102501/007/001.htm
- ▶ 富士見丘中学高等学校, <https://www.fujimigaoka.ac.jp/about/sgh/>
- ▶ 学芸館高等学校, <https://www.gakugeikan.ed.jp/introduction/sgh.html>
- ▶ 只見中学校, http://kir523528.kir.jp/?action=common_download_main&upload_id=42379
- ▶ Spaceship Earth, <https://spaceshipearth.jp/unescoschool/>